

말을 억제하고 말을 억제하고 마음을 억제하는 현명한 사람은 실로 가장 강한 사람이다.
 <法句經·본노품 234경>

東大新聞

발행인: 김대환, 편집인: 김대환, 발행처: 동국대학교, 발행일자: 1993년 11월 24일, 발행부수: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260-3492),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770-2057)

제1116호 (주간) 1964.1.1 등록번호 다-10 1955.10.13 제3호우원(가)법인자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3년(단기4326년)2월24일 (수요일) [1]

92학년도 학위수여식

석박사 2백72명 학사 4천2백44명 학위수여

전체수석 서울캠 우철희군, 경주캠 최현미양

92학년도 서울캠퍼스 학위수여식이 오늘(24일) 오전10시30분 오복원이사장, 민병철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에서 열렸다.

오늘 학위수여식에서는 박사 39명, 석사 2백25명, 학사 2천1백65명 등 총 2천4백37명이 학위를 받게 된다.

서울캠퍼스 전체수석은 평점 4.5단계에 4.24점을 얻은 우철희(경제)군이며, 전체차석은

4.21점을 얻은 이기우(야간강좌 경제)군이 차지했다. 각 단대별 수석졸업자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학과 및 평점)

△ 불교대 = 손아람(인철, 4.16)
 △ 문과대 = 박애숙(독문, 4.11)
 △ 이과대 = 김진순(통계, 4.14)
 △ 법과대 = 윤석준(법, 3.95)
 △ 사과대 = 김기호(사회, 4.05)
 △ 경상대 = 양동희(경제, 4.15)
 △ 농과대 = 오태석(농경, 4.07)
 △ 공과대 = 윤혜성(식공,

4.13) △ 사범대 = 백원선(국교, 4.18) △ 예술대 = 석명용(미술, 3.88) △ 야간강좌 = 임성기(경영, 4.17)

특히, 이번 졸업식은 예전과는 달리 졸업식행사 후 동문들이 참여하여 과별모임을 갖는 자리가 마련된다.

먼저 대학원 중심의 행사가 중앙당에서 열리게 되며, 정오 12시부터는 학과별 중심의 학위주최 전담식을 학과별 지정 강의실에서 별도로 갖게 된다.

이같이 학위수여식 형태가 지난해와 달리 학과중심으로 변경된 것은 학위수여식이 요식적 행사로 그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처·실장회의에서의 논의·결정된 것이다.

한편 경주캠퍼스 92학년도 학위수여식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문무관에서 열린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지역 개발대학인 행정학 석사 6명, 경제학 석사 2명 등 8명 및 수료 54명, 학사 1천8백7명 등 총 1천8백69명에게 각각 학위와 수료증이 수여된다.

경주캠퍼스 전체수석졸업생은 평점 4.5점에 4.34를 얻은 최현미(정보관리)양이며, 차석은 4.32를 얻은 이인철(법·야)군이 차지했다.

각 단대수석은 △인문대 = 김

영숙(중문, 4.28) △자연대 = 김미옥(화학, 4.29) △법정대 = 서순란(법·야, 4.11) △상경대 = 이인자(관광경영, 4.25) △한의과대 = 고희경(한의학, 3.93) △의과대 = 조윤철(의학, 3.85) 등이다.

관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에 동문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철(정치54졸)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를 빛낸 신임 이연태 노무부장관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 박상규회장 등분들을 축하하며 "내년에도 더욱 협력하고 발전하는 동창회가 되자"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금관산업진흥을 받은 김재기(경제60졸·한국주택은행장) 동문 등 12명의 동문이 축하패를 받았으며 김만석(경제63졸·몽고식품(주) 대표이사) 동문 등 17명이 모교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제 우리 함께

△참살나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지난 15일부터 있던 새내기 새로 배움터에서 아개동우를 하고 '우리'임을 확인하는 새내기들. <관련기사 7면·이석중 기자>

서울 교수회 정기총회

경주부총장 임명 해명 요구

서울캠퍼스 교수회(회장=이순용·법학) 총회가 지난 22일 오후 1시 교수 1백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엠버서더호텔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1학기 학사보고회를 마친 후,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김주환(지리교육) 교수의 비서실장 발령으로 공직이 된 김사직에 박명희(가정교육) 교수가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으며, 전임회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정년퇴임 교수에게 기념품 전달이 있었다.

또한 지난해 사업보고에서 회장은 "지난 12월 29일 재단측

이 경주교수회에서 상정한 부총장후보 2인 외에 제3자를 일방적으로 경주캠퍼스 부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교수회칙 45조를 명백히 무시한 처사라고 단정짓고 이사장과 총장면담을 통해 교수회 총회까지 해명을 요구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태며 이달말까지는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된 질의 및 토의시간에는 행정실무를 맡고 있는 처·실장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교수들이 질의와 건의를 하고 부서별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약 1시간 정도 진행됐다.

그러하여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지식의 양면성을 중요시하여 이를 구도행과 실천수행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원래 지식(mitra)이란 말의 뜻이 친한 사람을 가리키는 우인이나 친우·선우를 일컫거나 더 나아가서 스승·대

제21회 동국인의 밤

총동창회 주최 '제21회 동국인의 밤'이 지난 12월 29일 호텔 소피텔 엠버서더(2층 대연회장)에서 동문, 학교관계자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민병철 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국학술문화

1학기 신입교원 20명 초빙

93학년도 1학기 신규교원 임용이 지난달 18일 제118회 재단이사회 인사제정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오는 3월1일자로 발령된다. <관련기사 7면>

이번 신규교원초빙은 총 20개학과에서 초빙공고를 냈으나

교수동정

▲김태준(국어국문학) = 세계문화사 중 동아시아문화사 편찬 문제를 위해 유네스코 회의에 참석차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방문.

▲전창원(무역학) = 뉴욕주립대에서 열린 한미통상관련교양세미나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2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체류.

본사 부주간 이 만 교수

본사 경주캠퍼스 부주간에 인문대 불교학과 이만교수가 지난 18일자로 임명됐다.



본사 부주간 이 만 교수

90주년 기념사업회 발족

동국학술문화관 등 사업기금마련 강구

오는 96년으로 개교 90주년을 맞는 본교의 기념사업으로 추진되는 동국학술문화관공사에 당초의 지난해말 착공계획을 변경, 오는 6월말로 연기·준비중이다.

이렇듯 착공일이 늦춰진 것에 대해 관리처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토목공사를 먼저 끝낸 후 세부설계가 마무리될 오는 6월말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분리시공안'이 공사기간의 긴 공백기간과 이로 인한 공사비의 과다지출등의 이유로 세부설계도인 시공도면제안이 완료될 6월말로 착공계획을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변경된 것은 건물 외의 대략적 형태를 잡는 조감도에서 강의실의 위치가 변동됐으며 교수연구실이 남쪽으로 재배치됐고 건물의 기본골격이 채광을 고려 남쪽으로 조정됐다.

한편 동국학술문화관 공사 및 90주년 개교기념사업은 준비되고 있는 분당 한방병원 건립, 본교 부속 포함 한방병원 증축, 경주캠퍼스 자연과학관공사 등의 사업기금마련을 위한 90주년기념사업회가 지난해 12월 발족했으며 지난 3일자로 사업회 본부장에 박동기(전 경주부처장) 씨, 사무장에 신관호(전 취업계장) 씨 등이 임명돼 기금마련대책을 강구중이다.

90주년 기념사업회 사업계획과 관련 신사무장은 "주요 4개

학사보고회 열려

93학년도 서울캠퍼스 1학기 학사보고회가 지난 22일 오전 11시 교수 및 교직원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엠버서더호텔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삼귀의례로 시작된 이날 회의는 이사장 치사, 총장인사, 정년퇴직교수 인사, 신규교원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부서별 처·실장의 93년 1학기 간 있을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보리수

일반적으로 지식이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나 생각하는 작용 등을 말하거나 의제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에는 그 속성상 모든 것을 알았다고 해서 다 안 것이 아니고 극히 일부만 안 것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알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나 배워서 꼭 알 필요가 있으며,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이를 널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좋은 곳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知識)

53선지식 중에는 인격 완성자도 있지만 파란자도 있으며,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만나지만 실패한 사람도 만나며, 존귀한 사람도 상면하지만 미친한 사람도 대면하며, 어른도 만나지만 아이들도 만나는 등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만

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행각하는 것이 곧 구도의 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천수행문에서는 선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대면할 적에 자기와 알고 있는 참된 이치를 두루 배워서 세도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데, 그 행중에 있어서는

마치 지대로운 어머니와 같이 부드럽고, 항상 많은 것을 성의껏 배려해주는 아버지와 같이 온화하며, 모든 번뇌와 완만을 치유해주는 수도자와 같이 인자하고, 두려움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용장과 같이 씩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학교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떠나는 사람은 이 지식의 실천을 위하여 떠나고, 들어오는 사람은 지식의 충격을 위하여 들어오지만 어디 이 둘이 따로 있었는가. 어디에서 무슨 사람이 되어 있는 우리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분수에 맞게 탐답하게 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李 萬

졸업을 축하합니다

더 큰 배움을 시작하는 날에 ...

우리말의 '흐트머리'라는 말은 끝은 곧 시작과 맞물려 있다는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교육의 끝은 배움의 끝이 아니라, 자기 연마와 학문의 완성을 향해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출발선호라는 말과 결국 같다고 볼 수 있다.

.....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인생이란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 경주라는데 지금 조금 처졌다고 해서 결승점에 도달하는데까지 처지란 법은 없다.

.....

사실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 아닌가. 더 큰 성취감을 맛보기 위해 잠시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생각하면 결코 지금의 이 시간이 헛되다고는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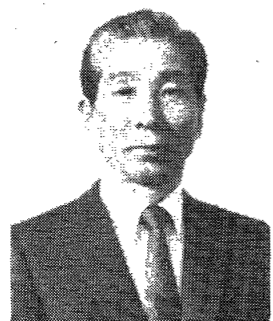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추억과 미래의 기대감이 아로새겨지는 가운데 몸은 비록 떠나지만, 모교는 우리의 가슴가슴마다 영원한 자량으로서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어디에 가든 '東國人'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우리들이 아닌가.



졸업생 전재현(국문과) 군

동대신문사

총장 식사



총장 식사

오늘 영광의 졸업생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오석원이사장님을 비롯한 큰 스님들, 전임 총장님, 동창회 간부님, 그리고 내외의 귀빈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는 민족의 사학 동국대학교에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졸업의 영광을 갖게 되는 여러분에게 전 동국가족과 함께 충심으로 축하의 뜻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온갖 열과 성을 다하신 학부모님과 가족 여러분에게도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그동안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배워 마음껏 열정을 펼치는 사회에 나서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희망과 결의를 가지고 눈부신 활약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맞는 사회는 결코 이상향이 아니며 냉혹하면서 극심한 경쟁과 시련이 도사리고 있는 도전의 현장이

1992학년도 졸업식에 부쳐

이 나라 양심과 올바른 역사 의식에 따라 이웃과 민족사회의 공헌하는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로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이 배움을 막을하는 날로서가 아니고 더 큰 배움을 시작하는 날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로서 학사, 석사, 박사 등 하나의 학업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야 비로소 깊고 깊은 배움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더 어렵고 더 넓은 인생의 학업과정을 평생토록 이수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

서 동국의 교문을 나서지만 고리도 이어지는 영원한 동국인임을 잊지말기를 바랍니다.

모교인 동국대학교의 발전이 여러분의 발전이며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항상 동국대학교가 함께 합니다.

학교에 있는 동국인 모두가 여러분의 앞날을 도울 것이지만 여러분도 모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교에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동국대학교는 민족의 선봉대학으로 그리고 세계속의 명문대학으로 계속 성장해 갈 것입니다.

진이라는 졸업생 여러분/ 영광된 졸업의 기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보낸 여러분의 학생생활은 시련과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대여포기의 종언과 함께 동서남북의 시대는 청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호부부의 장벽속에서 선진국들은 또다른 경제적 마찰을 일으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전히 남북대화는 지지부진하며, 또 경제적 성장의 둔화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文민정부의 출범 등 민족적 도약의 전기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정든 교정을 떠나서 사회의 각 분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당부하고자 하는 점은 언제 어디서나 동국인의 자부과 긍지를 잃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부쳐 드려온 동국인으로서 사회각계각층의 중추적 위치를 이기 확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명예에 버거가는 새로운 가치창조의 일꾼들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그 취임사에

이사장 지사



이사장 지사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시간과 공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무뎠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민주화의 여적을 거쳐 보다 차원 높은 복지국가를 향해 달려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넓은 세계가 열립니다. 이제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무언가 보람찬 새 인생을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미래를 희망으로 가꾸는 힘은 바로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

이하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뜻을 지니기 바랍니다. 나라는 개인은 결코 혼자서 존귀할 수 없습니다. 가장고도 번영의 인과관계들의 축적이 우리를 인생입니다. 지성인이란 그 속에 報國의 열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과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은 바로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일입니다. 성실과 인내로써 고난을 이기고, 막대한 감성으로 차가운 불행의 벽을 넘어 훌륭한 인격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디 건강하고 복된 날이

희망과 결의를 가지고 눈부신 활약 기대

첫째, 우리 동국대학교에서 계획한 '지혜'를 불퇴전의 '용기'를 가지고 '자비'로서 실천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다운 지성을 실천하여 어둠을 밝혀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앞장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치에 급급한 사람

서야 할 것입니다. 발전하는 지성은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연비를 할 때 더욱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졸업후에도 깊은 탐구와 인격을 갖고 뛰어난 훌륭한 평생직을 하고기를 바랍니다.

셋째, 여러분은 비록 오늘날

여러분의 졸업을 재삼 축하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부쳐 드리는 지비명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식사에 가뭇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장 민병천

복된 날이 펼쳐지기를 중심으로 기원

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국대학교는 지혜와 자비의 실천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여러분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제 그 벽찬 진리의 여운을 현실로 서 다가서게 해야 할 때입니다. 진이라는 졸업생 여러분/오늘의 이 자리를 빌어서 성심껏 지도해 주신 민병천총장님

펼쳐지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크신 자비원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거듭 기원하면서 이만 졸업의 치사말씀에 가뭇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오석원

부정입시 파문

사학재단·정부 모두 책임

얼마전 한겨레 신문에 "31개 대학 1천여명 부정입학"이라는 머리기사에 첫눈을 뜨셨습니까? 88년에서 91년까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한림대 등 전국 대부분의 사립대학에서 성적변조, 미등록 추가합격자 인의신발, 교직원 자녀 특혜입학, 기부금등의 방법으로 광범위한 입시부정이 저질러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기가 막히는 사실은 이러한 사실이 교육부 자료를 통하여 밝혀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입시부정을 저지른 대학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조치가 대학에 따라 차

별적용 됐을 뿐 아니라 조직적인 입시 부정의 개연성이 확인됐는데도 당국에 대한 고발 등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아 교육부와 사립대 관계자들이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한다. 이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학교도 91년도에 신입생 및 편입생 선발과정에서 1992년 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대학현실은 그 최악의 상황까지 와 있는 느낌이다. 특히 사학재단의 무성의한 교육투자자와 정부의 빈약한 교육재정구조는 이 땅에서 가장 올바르게 서야 할 교육현실을 완전히 망쳐놓아 버렸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터지는 '대학입시부정사건'에 대한 검찰의 정치는 이 땅의 교육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에 비하면 그 어느 대학도 이렇게 당혹스러워하는 식의 노예적 공중의식을 대학에 강요하고 있다. 전부가 한때 들어올 돈으로 교육에 투자를 한다면 과연 지금의 대학 모습이 이렇게까지 퇴락할 수가 있을까? 그 많은 교육계는 교육에만 투자한다면 오늘의

경주 복지매장 건립시급

새롭게 학교를 찾게 될 신입생들과 학교를 떠나 사회인으로 첫발을 디뎌 졸업생 모두가 축하를 보내다. 우리는 새로 맞이할 시구들이 불편해 할 곳이 없는지 주변

각 단위 교과외 체계 구축 필요해

현재 대학교육에 대한 학우들의 요구는 동양의 모순된 현실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학우뿐 아니라 단위입단들도 이러한 요구를 체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방법론에 있어 부족함은 없지 않다. '지주적 학생회'의 기치를 내건 총학생회는 동국중흥을 염원하는 많은 학우들과 88년의 기억을 되살리는 예비역 선배들에게 일단 민중적의견을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학우들도 커다란 정치적 쟁점이 없는 올해에는 드디어 학원의 자주화를 이루어 낼 것이라는 기대에 차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추상적 믿음으로 학원자주화를 고대할 것인가의 의의이다. 동국중흥을 위한 확신이 섰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준비

온 방골

이제는 졸업생 여러분/ 영광된 졸업의 기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보낸 여러분의 학생생활은 시련과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대여포기의 종언과 함께 동서남북의 시대는 청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호부부의 장벽속에서 선진국들은 또다른 경제적 마찰을 일으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전히 남북대화는 지지부진하며, 또 경제적 성장의 둔화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文민정부의 출범 등 민족적 도약의 전기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수석졸업자

우철희 (경제4) 군

“아직도 열렬합니다.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 기쁩니다” 조금 쑥스러움과 미소를 지으며 소감을 밝히는 수석졸업자 우철희(경제4) 군. 우군은 “우선 저를 있게 해주신 부모님과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라며 부모님들께 영광을 돌린다. 재수시절 부모님과 지금의 명석에 누워계신 할머니께 마음고생을 많이 시켜드려 조금이나마 보답해 드리고자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했다고. “그런데 뜻밖에도 명예를 얻게 돼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보답한 것 같다”며 흐뭇해 한다. 취득학점 1백47학점, 평균평점 4.24로 전체수석졸업의 영광을 안겨준 우군은 “학군단, 동아리, 학회활동등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최선을 다한 것만 자랑한다. “4년간의 대학생활에서 한번도 수업에 빠진 적이 항상 앞자리에 앉아 교수님 강의 열심히 듣고 노트정리해 두었던 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라는 그의 말에서 성실한 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재입학에 취업이 되었지만 학군단원이었기 때문에 우선 장교로 군생활을 해야하는 우군은 앞으로 소위로 임관해 권위로 군생활을 하려한다며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리더가 되고싶다”며 이것이 자신의 생활철조인 ‘말년사립이기에’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수석졸업의 영광을 안고 동양을 떠나는 청년장교의 이별이 유난히 믿음직하게 보인다.

대자본선

일문과 김용기교수 수강 거부

일문과 학생회는 지난 90년 비민주적 절차로 통해 영입된 그간 전공강의는 단 한시간도 받지 못한채 교양과목만 강요돼오던 김용기교수가 지난해 2학기 승진·임용된것에 반발하고 있다.

김용기 교수는 90년 임용시 3순위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일방적인 낙정에 의해 임용돼 과학생들의 강한 반발로 그간 전임강사가 맡아왔던 9학점에 미치지 못하는 6학점만을 강의해왔다.

대학입시부정

그러나 지난해 2학기 재입용시 승진한 정계사유에도 불구하고 승진입용됐다.

한편 일문과 학생회는 그간 학교당국의 비민주적 인사절차를 인정하는 등 인위하게 대처했고,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급급했다는 반성을 하고 보다 발전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즉 김교수의 강의에 대해 전면적인 거부 결의하고 대자본과 관련된 학생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김교수의 강의를 신청하지 않도록 했다.

일문과 학생회는 “진정으로 실력있고 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수님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모셔 배워보고자 했던 우리의 꿈은 이번 재입용 과정에서 산산이 부서졌다”며 앞으로 각 단위 학생회와 총학생회 중앙교과위등과 연계해 김교수 문제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린글터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민화를 발송합니다. 주지하지 마십시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은의 260-3491-2.

목 먹골

졸업 축하드립니다

■ 열아홉은 눈이 녹아내리며 어드나스한 봄의 기운이 동양에 다시 살아 오르는것 같습니다. 동양 87년의 승고한 내사속에 언제나 졸업하는 선배님들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동양의 미래는 더없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선배님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주성과 건설을 위해 애국의빛 제25대 총학생회는 더욱 힘찬 전진을 약속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애국의 빛 제25대 총학생회 선배님들 힘내십시오./ 불교가족·학신의 기지 높이고, 원하게 달려나갈 후배들이 여기 있습니다. 참 삶의 고민을 하였던 선배님들의 노력이 귀한지 곳곳에 매아리 지길 기원합니다.

■ 불교대 학생회 협정 ■ 졸업을 맞이하는 선배님들께 자랑찬 민족통국을 축하하는 선배님들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곳 동국의 자랑스런 잊지마시고 원하게 생활해 주십시오. 남아있는 저희 모두 선배님들의 명성이 원하의 오점 남기지않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제25대 통일 문과대 학생회는 선배님들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 제25대 통일 문과대 학생회 ■ 또 하나의 시작을 위한 절실함과 분주함이 느껴집니다. 그동안 선배들이 열어 내셨던 뜨거운 승결들 우리들의 가슴 깊숙히 자리매김

동양 광장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시는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 누구보다 젊다는 패기와 야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선배님들이 되시고 생활공간이었던 동국대학교의 후배들이 커가는 과정 또한 지켜봐 줄수있는 믿음직한 선배님들의 모습을 믿습니다.

■ 임용고시 준비로 도사란 장판으로 쌓이는 눈은 마음은 밝아 보냈을 안타까우시 선배님들의 졸업과 함께 사라져가고 믿어봅니다. 선배님! 졸업 축하드립니다./

■ 일문과 선배님들, 조국사랑 제25대 사법대 학생회 ■ 93학년도 졸업생 선배님들의 힘찬출발을 축하합니다./

■ 자주문예의 한길 제25대 예술대 학생회(간) ■ 새로운 다짐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야간강과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힘차고 앞선발걸음으로 발전의 앞날을 기원하는 자랑스런 모습을 기대하며 저희 1200야간강과 식구들은 선배님들의 사랑만큼 항상 동양의 모범으로 조국사랑의 마음으로 우뚝설것을 약속드립니다.

■ 청년의 패기 / 승위는 조국 / 제9대 이간강과 총학생회 ■ 교육이교육과 선배님들 졸업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새나기를 입학 축하합니다.

■ 나랏말의 터전 제25대 국어교육과 학생회 ■ 민족사랑의 졸업선배님들(성원, 문석형)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넓은세상에 나가서 한번 잘

온 방골

살아보시지요! -89 모학우 ■ 현여를 10기, 11기, 13기 선배님들의 졸업을 축하합니까? -현여를 16기말/ ■ “동국”교직원취임위원 편지위원회이었던 김태환형의 졸업을 축하하며... -“동국”교직원취임 후배들 ■ 사후의 형, 누나, 오빠...OB선배님이 되셨것을 축하드립니다. 사우회를 계속 사랑하는 선배님이 되어서주세요. -14대 사우회 ■ 존경하는 인사이형님/ 당신의 도움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 바람소리들 ■ 혁신, 재회, 성은, 지에학생들의 졸업을 축하. 앞으로 사랑과 건강을 받고 유지하세요. -동·연 ■ 우식이형, 정의형, 우숙이누이, 대희이형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리정돈하고 모범적인 사회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건필하십시오. -제35대 시와사랑의 한울밭 동국문학회 후배들 ■ 결혼하려고 졸업하는 영필이형 졸업축하하고 결혼도 축하해요./ 28일 조제사에서 해준양과? -동명석 ■ 동국 유스호스텔 형님·누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팬클럽이요? -D·Y·H 12 ■ 사회학과 졸업생여러분들께 정말정말 축하합니다. 올해부터는 반드시 꽃과 반지를 헤드럴게요. 열심히 생활하시고 이후 동문회에서 만나요. 한번 사회학과원 영원한

온 방골

사회학과 / 졸업생을 사랑하는 후배들 ■ 졸업생 축하드립니다 ■ 사회전출의 첫발을 딛는 졸업생들에게. 졸업은 이제 또 다른 사회로의 첫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고민과 책임, 힘찬 걸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생활하시고 몸담았던 학교에 뜨거운 애정과 사랑을 보내주시고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제10대 희망찬 총학생회 ■ 졸업생들에게 드리는 글 몇몇간을 담담하고 있던 학교를 떠나 사회인으로서 새출발을 하게될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가의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가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의 노력이 경제발전의 초석으로 자리잡게 될 것을 믿습니다. 1993년 힘찬 도약의 해가 되시고 언제나 동국인의 긍지를 잃지말며 멋진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신화와 의리의 공동체 제2대 인문대 학생회 ■ 언제나 우리들의 삶은 단남과 헤어짐 그리고 또다른 만남을 준비

온 방골

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합니다. 변함없는 교정의 푸르름과 따뜻한 햇살은 선배님들이 떠나신 그날에도 추억을 되새길 만큼의 모습들을 가꾸어 놓았지요. ■ 졸업생 축하드립니다 ■ 선배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5대 자주 청년성당 학생회 ■ 법정부대 졸업을 목전에 둔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동국법대에서 저마다 강인한 신념과 의지로 나름대로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 계절의 바깥기를 녹이고, 이제 그 어려웠던 학문의 계단을 넘어 더 높은 계단을 향해 더욱더 나래를 펼치십시오. 선배님들과 함께 했던 회우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선행의 정을 나누지만, 다시 만남의 날을 기억하십시오. -행동으로 지심 제6대 법정부대 학생회 ■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선배님들의 노력과 투쟁의 결과로 자연과학 완공을 눈앞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선배님들의 힘찬 노력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저희들도 선배님들의 뜻을 함께하며 날로 발전하는 자연대를 위하여 힘차게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하며 선배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민으로 함께하고 행동으로 신뢰받는 제6대 자연대 학생회 ■ 정보산언학과 제1회 졸업을 하시는 선배님들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잊지마세요. -92학년 이모 ■ 우리의 빨간건물은 93년도에

온 방골

반동의 붉은 피로 더욱 붉게 도색될 거야 졸업을 하시는 유식, 함해, 용수, 충근, 수면 선배님들 축하하고 영원히 행복하시길. -92년 누구누구가 ■ 현주언니, 정은언니, 은아언니 졸업축하해요. 언니들 우리 9대 송골산 총학생회와 절친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기러기가 드립니다. 기묘도 축하해요. ■ 축하합니다. 불교학과, 불교여동학과 연합 예비대학. ■ 부산 영도여고, 남고 선배님들 졸업 축하드립니다. -외숙 ■ 탈패 선배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사회생활도 멋있게 잘 꾸어주시길 바랍니다. -고전연구회 ■ 부산 해광고·삼성여고 동문회 졸업선배님들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언제나 불의를 보면 불끈(?) 일어 나시는 모습으로 열심히 생활하세요. 축하합니다. ■ 석정77번지 경원이 형. 탈출/탈출/대탈출! 학교 탈출을 축하해요. 굳이 가만 행복하게 사세요. -불교학동 ■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너무 느리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비탄에 빠진 자에게는 너무 길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너무 짧고, 그러나 사랑하는 이에게는 영원히 기다려요. -졸업하는 명집, 형권, 친환, 혜정 선배님께 사랑합니다. 졸업은 축하하며 사랑하는 선배님들이 사랑하는 선배님들께 축하합니다. ■ 정은정 / 박영정 / 4년동안 도사란 편방에 찍은 학우들이여 잘가세요. -92학년 용이 ■ 형숙이형, 진호형, 우영이형 졸업을 축하해요. 이제 가만 언제든 나(으랴, 호호) 하지만 계속 보게 될 것 같네요. (말 안해도 알겠지요) 모두들 열심히 생활하세요. -동대신문사 3기 기자연합회

신년들어 대학입시부정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학입시부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부정부패척결을 외치는 새정부의 출범을 앞둔 시점이라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다.

우리학교도 수년전 입시부정 때문에 휩싸였으며 그후에도 여러 대학에서 입시부정사건이 터져 나왔으나 항상 그 처리는 미온적이었다. 그 이유에는 취약한 대학재정에 대한 이해와 동정이 컸던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입시부정사건의 뒤에는 항상 대학재정의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기여입학제가 거론되어 왔었다. 그리고 기여입학제가 거론될 때마다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대두하였다. 이번 입시부정사건 뒤에는 단골메뉴인 기여입학제의 거론 외에도, 대학의 자율능력을 의심하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기여입학제의 특성을 논하기 전에 대학 자율화가 대학재정과 입시부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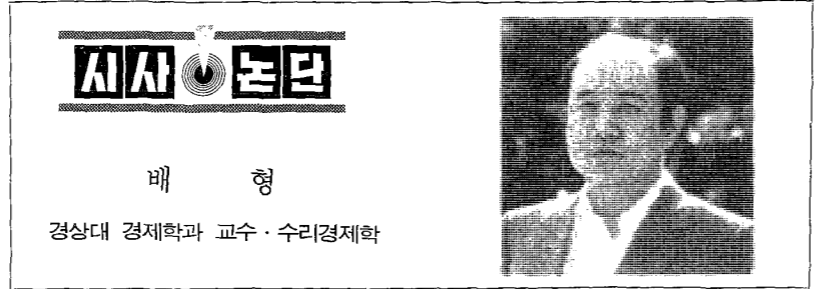
먼저 대학재정이 자율화되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규모의 경제에 입각하여 재정지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대학재정의 자율화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적향상, 저학력 생산인력의 공급축소, 교직원 처우의 증가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정년자율화 속에서 대학간의 학생유치경쟁은 대학의 자율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대학의 입학이 자유로워지면 대학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대학의 경쟁의 수단이 입시에서 양질의 대학교육, 우수한 성적의 취득, 졸업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졸업이 어렵거나 졸업후에도 직업선택에 큰 변화가 없을 한계 학생들은 결국 자발적으로 대학진학을 포기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대체 학력학력이 세계 2위인 점을 감안하면 대학재정이 자율화되었을 때의 대학진학도 장기적으로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금처럼 재학생이 많은 상황과 대학학업을 못해 방황하는 청소년인력이 어차피 생산인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자율에 대한 진화하는 것이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나을 것이다.

학생들의 편의에 대한 자율능력향상의 지지도 대학재정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상황에서 등록금의 인상은 대학진학여부가 경제력에 좌우되는 불합리한

점을 가져왔지만, 정부의 용자가 충분히 주어진다면 수직자부담이라는 합리적 측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등록금이 자율적으로 책정될 수 있다면 대학간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쟁은 더욱 가열될 것이다. 우수한 대학만이 높은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학재정과 등록금정책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은 생산량과 가격이 동시에 제약되어 있는 것으로 대학진학에 대한 초과수

고 있는 것처럼 학교경영에 있어서의 교수들의 자율성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를 가장 잘 아는 전문인력들에 의한 자율적 경영은 경영합리화를 통한 재정적 취약성의 보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교수들의 자율적 경영이 합리적인 결과를 가져 오려면, 교수채용부터 승진 승급에까지 교수들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입시부정의 척결은 대학의 정년이 자율



배형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수리경제학

우선 대학정원 자율화 조치부터

대학재정과 입시부정

요가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대학간의 경쟁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부정입시사건으로 인해 대학의 자율능력을 의심하는 시각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과연 우리대학들에 자율이 주어졌는가? 지난 권위주의적 시대에 비해 정부의 간섭이 어느 정도 줄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간섭축소는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더불어 재단의 권한만을 높여 놓았을 뿐 대학의 입학이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었다. 입학의 자율을 보장하는 자율능력을 높여 주어야 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능력을 높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재정의 자율화라는 것이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나을 것이다. 학생들의 편의에 대한 자율능력향상의 지지도 대학재정에 양면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상황에서 등록금의 인상은 대학진학여부가 경제력에 좌우되는 불합리한

회되지 않기는 달성하기 어렵다.

모든 정부규제가 그렇듯이 대학재정의 규제는 그 규제의 문턱을 넘어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이득을 주게 된다.

따라서 그 이득을 얻기 위한 부정부패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일단 규제의 문턱을 넘어서면 경쟁의 대상이 축소되고 최소한의 이득은 보장되어진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입시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막상 대학에 들어오면 공부를 않는 것은, 이들이 보장된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엄청난 낭비적 경쟁을 하지만 일단 문턱을 넘고 나면 경쟁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입시경쟁을 낭비적 경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한 학생이 자신의 전공을 공부하고 그 길로 진출하는데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문턱넘기에서 일어난다. 우리나라처럼 입시공부부터 실질적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교육을 받는 것도 문턱넘기의 일종으로 부정의 소지를 받고 경쟁의 지위를 가져온다.

이제 대학재정의 보다 직접적인 확보방안인 정부보조와 기여입학제를 검토해 보자.

우리나라 대학교육비의 대부분이 등록금에서 충당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정부보조의 확대가 대학재정확보의 방안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정부보조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대학재정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정부보조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근로하여 낸 세금 중의 일부가 대학에 진학한 등록금의 교육비로 쓰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는다. 또한 경영이 합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정부보조는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보조를 위해서도 대학재정확보를 위한 방안이 있어야 하며,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보조를 교원공급의 일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

기여입학제도도 정년에 대해 못하는 학생이 있는 가운데 시행하는 것은 국민적 감정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므로 대학재정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재정이 자율화된 뒤 재정이 취약하여 수준이 낮은 학교들에 기여금을 내고 입학할 학생들을 얻을 것이다. 따라서 기여입학제는 재정이 취약한 학교들의 재정확충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전반적인 교육정책의 수립도 생각할 수 있으나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중기임대처를 비효율적인 학교운영이 격정되며 경쟁의 지대로 인한 교육수준의 저하도 우려된다. 결론을 맺고 대학재정의 확충과 교육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대학재정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학생들에게는 학자금장려금이 가능해져야 하고, 이러한 속에서 일부대학들은 정원확대, 등록금인상, 기여입학 등으로 재정확보를 해야 하고, 그의 대학재정은 교육수준을 높이는 부지에 한하여 정부가 보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경주캠퍼스의 부총장은 학내구성원인 교수, 학생, 직원 3자의 합의에 의해 인력과 파벌에 흔들리지 않고 경주캠퍼스 구성원들의 다수 지지와 사학진흥, 학교발전을 위해 힘을 쏟을 수 있는 인물을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있다.

재단의 이번 부총장 인사는 적법성 여부를 떠나 학교발전에 역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양측기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다면 경주캠퍼스 행진수반 선출의 합리적·민주적 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신현재 전 경주캠퍼스 부총장의 뒤를 이을 경주캠퍼스 부총장 선출을 놓고 둘러싼 일련의 갈등 상황들은 먼저 재단이 경주캠퍼스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선행되어야 극복될 수 있다. 또한 경주캠퍼스 학내구성원들은 경주캠퍼스의 지주성 확립과 학내 민주화를 위해 경주캠퍼스 대표적 부총장의 인사·행정권 독립의 권한 확립을 위한 재단의 노력을 다각도로 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재환 기자>

사설

부정입시 누가 조장했나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개혁과 생존에 대한 관심이 많다. 사회를 경각시켰던 대학입시부정사건을 보며 사회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학의 '생존방식'에 대한 생각들이 이처럼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는 것도 드문 현상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대학에 대한, 특히 사립대학에 대한 총체적 반성과 진로 모색이 지겹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결론된 입시제도,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수준이하의 졸업자들이 취업난 사상 최대의 부정입학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던진 과제는 21세기를 대비한 교육개혁의 진로, 좀더 구체적으로 사립대학의 질적 변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교육개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국고보조는 사학재정의 1.7%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의 1/10도 안되는 상황이다. 등록금의 증액은 올해 8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수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재단입금의 확충을 기대한다는 것은 위험한 '모험'일 뿐이다. 이러한 사립대학에서 건물을 증축하고 우수교원을 확보하는 등 질적 발전을 위한 지구책은 언제나 구조적이며 근본적인 '재단난'이 대학운영자들을 곤궁에 빠지게 한다.

사학의 고질적인 재정은 교육부가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 88년부터 91년까지 4년간 21개 대학에서 8만525명이 부정입학, 1백70여억원의 기부금을 받았으며 전국49개 대학총 38개 대학에서 재직적으로 미등록자부정출원 형태의 '암묵적인' 부정입학이 있었다고 교육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이미 사회적으로 인식된 사학 재정난과 최근 3년동안의 부정입학사건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정부와 교육부의 교육개혁정책이라는 게 극히 소극적이면서도 터무니없다.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재발할 수 있는 부정입학의 근본적 원인과 처방을 모색해 보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입학의 근본원인과 처방은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정부와 교육지원 확대이다. 현재 GNP의 3.6%(8조원)만이 대학에 투자되고 있으며 그것도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암묵적'으로 약속되는 현실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인건비 교육지원비율 5% (20조원)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의 사학재정난 해소는 8%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다. 또 세계상 해마다 기금화 미약하다는 지적이 높음에도 일례로 교육발전기금은 산업용보다 비싸게 책정돼 있다. 둘째 사학의 자율성 인정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정원조정, 입시제도, 대학행정 등 대학운영의 필수조건들을 통제함으로써 사학의 자주적 마련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대학의 사회비판적 기능을 약화시켜왔던게 사실이다. 더욱이 사립학교법의 개악은 대학을 '수익사업화'하려는 재단의 비리를 촉진시키는 악영향을 남긴 채 강제한 것이다. 셋째 사립학교법의 재개 및 재단의 의무를 강화하는 교육관련법의 개정과 재단의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해법조치를 수 있다. 특히 본고 재단처럼 부등한 형태의 자산을 제외하고 특별한 수익사업이 없는 사학의 경우 재단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교육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또 폐쇄적인 대학행정의 공개원칙도 학내 구성원간의 마찰을 줄일 뿐더러 궁극적으로 사학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무한한 나위가 없다.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운운하는 오늘날 한국사학의 쓰린 상처와 근본지방을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육은 백년대제이지만 지금 한국사학의 모습은 국가 10년 미대도 불투명하게 만들뿐이다. 과감한 개혁, 용기있는 실천이 지금 대학정책에 필요한 자세임을 정부와 재단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초대 만평

최경인



또다른 시작을 위해

경주 직선 부총장 선출 무산

재단, 서리체제로 낙점인사 '불씨' 서울·경주 교수회 공동대응키로

재단이사회(이사장=오복원)는 지난 1일자로 경주캠퍼스 신입부총장으로서 김시배(경제학) 교수를 임명했다. 이로써 작년 하반기 경주캠퍼스 학내 주요 현안으로 대두, 경주캠퍼스 자치권 확보와 학내 민주화의 다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직선 부총장' 선출은 사실상 무산됐다.

재단은 부총장으로 작년 12월 29일 김교수를 선임하고 지난 1월 18일 정기 재단이사회의에 정식 보고함으로써 작년 11월 4일 경주캠퍼스 교수임시총회에서 선출한 김갑주(국사학), 신현제(영문학) 교수의 제3의 인물을 기용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재단측은 이번 인사의 근거로 '사립학교법에 의거한 적법한 재단 고유의 인사권 행사'이며 예대다른 경주캠퍼스 부총장 임명은 하등의 하자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경주캠퍼스 총학생회 및 각 단과 학생회, 학생자치기구들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행적 낙점인사를 인정할 수 없음'을 뜻을 같이하고 지난 1월 5일 정각원에 서 있었던 경주캠퍼스 시무서에 서 낙점인사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주캠퍼스 총학생회장 정순현(경영)은 이번 인사를 '전혀 적

인 재단의 횡포라 규정하며 '민주적 절차에 의한 부총장 선출만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길이'며 근본적인 문제는 넘어간채 '적법성'만을 강조하는 재단의 태도는 이에 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교당국은 지난 1월4일 부총장직을 함의방문해 부총장직을 폐쇄하고 집기를 파손한 총학생회에 기물파손과 '학생으로서의 도리'에 어긋난 행동의 책임을 물어 총학생회장장 5명에게 무기정학 및 견책의 징계를 내린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 학생들의 반발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학교당국의 의지를 확고히 표명했다.

이번 인사의 당자자인 김부총장 서리는 "학교의 발전과 구성원들의 화합을 고려, 경주캠퍼스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그러나 교수회의의 결정을 무시하겠다"는 입

장을 밝히고 있다. 경주 캠퍼스 교수회(회장=박준학·행정학)는 지난 11일 제4차 서울·경주 합동 대의원회에서 재단과 총장에게 이번 인사의 재고를 요청하는 안을 결정하고 오는 26일 열리는 교수회 정기총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또한 서울캠퍼스 교수회(회장=이순용·법학)는 이번 부총장 인사의 재고와 교수회의의 입장을 경주총 교수회의 의결에 따라 공동대응하기로 지난 10일 서울·경주 합동 교수회 대의원회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총장직선임에서 학교당국과 재단측은 △법과 정관에 맞는 적법한 인사 △직선제 선출로 맞지 않는 학내 구성원간의 불만을 방지한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들어 인사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수회측은 시대적요구에 역행하는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학교의 대표를 재단이 비민주적으로 임명하는 사학이거의 없음을 불매 설득력이 없으며 적법성 여부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캠퍼스에 대한 상대적 추종성을 버리지 못한채 인사들의 행적 전반에 걸쳐 본교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주캠퍼스의 현실 상황은 구성원 대부분이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직선부총장의 영입은 서울·경주캠퍼스의 현격한 거리차와 상황의 빛이낸 양캠퍼스간의 갈수록 벌어지는 괴리를 해소해 줄 수 없는 불투명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주캠퍼스의 대표적 부총장이 행진제반의 실무에서 밀려나는 상태에서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우선시 해야 할 부분이라는 결론으로 대두

외국어교육의 선구자

PAGODA

FOREIGN LANGUAGE SCHOOL

많은 대학인과 직장인들이 파고다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이유는

외국어 교육과 우리의 영광된 미래를 위해 별처럼 빛나는 교수진을 모셨기 때문입니다.

ASIC부터 고급에 이르는 미국인 영어회화·SLE코스 (각반 12명 정원 / 강사진전력·박사출신 미국인/12년 완성) 미국생활영어·Side by Side 기초영어회화·LADO회화

ENGLISH영학·TIME·영어순회(독어)·TOEFL·총합영어·고급TOEFL종합반·GRE·GMAT·문법·영어실용기초 VOCABULARY·AFKN·TOEFL·C·취업영어

PEAKING과 LISTENING을 동시에 강구하는 11本書·표준발음·NHK 일본어회화·러시아어·러시아어 회화 프랑스어회화·독일어·중국어·중국어회화·스페인어회화

TUTORIAL SYSTEM으로 특수 훈련된 최선학 교수법·외국인 학습분위기·최신시설·전원전망·수료증취득·과학적이고 정밀분석된 Placement Test를 거친 LEVEL배정·TOEFL없이 입학가능한 WISCOSIN 주립대학 PROGRAM 개설

자비유학 준비반(1일 6시간)
종로·2가 파고다공원 건너편 원빌딩 274-4000
다음학기 예약접수중
강남·압구정역 동호대교교원 원빌딩 515-4020

외국어학원

삼육외국어학원

S.D.A는 미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각국이 재매학원으로 운영되는 외국어 회화의 전문교육기관입니다.

★ 각학원 선착순 모집 ★

- 개강: 3월 3일
- 접수: 2월 21일부터 2월 28일(서울)

서울학원 — 영어, 일어, 러시아어
T.서울 (244-1275)

영동학원 — 영어, 러시아어
T.영동 (543-2270)

남영학원 — 영어, 일어
T.남영 (706-3615)

신림학원 — 영어
T.신림 (889-4637)

프랑스어

93. 3~4월 학기 수강등록
•개강: 93. 3. 3 (수)

alliance française

MÉTHODES Adolescents-Adultes

알리안스프랑세즈

- imitation, mager I, II, BEF I, bonne route I, II, NSF I, BEF II, ARC I, AP I, II, espaces II, échanges II, NSF III, SF, TRADUCT, questions internationales, expression écrite, annexe 2, 각 과정 수강 수료생, DOSSIERS과 conversation libre 시시미디어반.

seoul-centre ☎ 755-4972, 57021 (중구)
nam-seoul ☎ 555-1125, 11261 (강남)

PUSAN: 622-3601 (K) WANGJU 526-0189
TAEGU: 255-4630 (D) DAEJON: 256-5181

alliance française 韓國 韓文文化 財團

변리사 강좌

1. 1993. 3. 2 일부터 강의(2개월)

2. 과목: 특허법, 상표법, 의정법

3. 강사진: 이순용, 이인준, 이우연 등

4. 교재: 이순용 저, 특허법, 상표법, 의정법

5. 장소: 한국공법연구원 법학연구소 (서울역역)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길 11 (서울역역)

6. 전화: 552-0534, 561-9087

7. 회비: 15만원 (입학비·복합비)

유신사법학원

732-5346
730-6946~7 (충무로 1가 법관수석사무관)

735-2323, 9716 (충무로 1가 법관수석사무관)

그 유명한 "광화문 영어학교"

이 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한학교에 많은 인원의 학생들을 출사시키고 영어 공부용 체제로 시키는 학원에 나가 영어 회화 졸업증을 가지고 직장이나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는 곳

선생님 모두 자격있는 서인 사람이요 학생은 모두 사내에 몰입한 여러 계층의 남자와 여자들만 곳

들어가기 좀 힘들지만, 허접직업에서 보채지 말고 좀 미려한 학원 수준의 영어 수준에 따라 공부하게 입학시켜 주는 곳

잇속 때문에 학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 재단의 연구사업으로 한국인에게 영어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

서울시내의 회화학과 영어 담당 교사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곳

제 128기 수강생모집

- 개강: 1993. 3. 4 (수)
- 강사진: NATIVE SPEAKER
- 강의시간: 1월 75분 수업
- 반원비: 8-13명씩 7만

미국·영국 개별 어학연수 상담

언어교육연구원 language teaching research center

코리야호텔빌 737-4641 (대)

ZEN ADVERTISING

학교 주변 물가

학생힘으로 조절 가능하다

한양대 총학 업주와 음식값 부분합의 '성공' 본교도 설문조사·상가조사 등 실시계획

매년 이맘쯤 등록금·물가인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진통을 겪는다.

또한, 물가인상만인지 학교주변 음식점들의 음식값이 벌써 들쭉거리고 있다.

이런 학교주변 물가상승은 학생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양대 학생들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로 생각되어진다.

이미 학교주변물가상승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업주들과의 1·2차 협상까지 치른 한양대 총학생회의 경우, 라면·국수와 같은 면류의 100원 인하는 합의됐으나 밥값의 인하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 작업은 먼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당한 근거를 들어 업주들과의 협상을 진행시켜 얻은 성과였다.

우리 학교 주변음식점들도 음식값을 올리려고 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25대 총학생회에서는 중·장·단·야·주·목·을 포함한 학교주변음식점들의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본교 주변 한 음식점 주인의 "어느 한 쪽에서 음식값을 올리면 우리도 올려 줄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요"라는 말에서 음식점들간의 연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또한 HOF집 주인의 "학생들은 신선, 회양리, 혜화동, 돈암동같은 곳으로 약속 장소를 정해요. 일부러 학교주변에서 친구들과는 만나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지리적인 문제로 고려되어야 한다.

위에 든 예만으로도 한양대와 같이 힘의 가늠이 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이런 반면, HOF집 같은 경우는 정기모임이 있어서 어느정도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정기모임이 많지 않은 학교를 제외하면 정기모임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다.

본교 총학에서는 이번 93년 학생수협 제작시 수협 뒷편에 학교주변음식점들의 전화번호를 기입함으로써 알은 수익금으로 도서관에 책을 기증할 예정이다.

또한, 동아리후원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 이런 복지사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될거라 한다. 제25대 부총학생회장 이상표(야간부4)은 "구체적인 작업에 들

어가기 전에 주변상가들의 총 연대가 선행되어야 하고 학교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개강이 되면 설문조사와 주변상가들에 대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총학은 밝히고 있다.

하지만, 3월이 되면 개강과 함께 모든 학생이 교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구체적인 사업의 출발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방학기간동안 어느정도도 진척상황이 이루어졌어야 하며 또한 학생들의 인식을 감안한다면 몇백원 정도야 하는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이 어렵게 보인다.

맛사리 분석집 주인은 "우리집 음식값은 쌀 편이에요. 또 학생들에게는 일반인보다 저렴하게 해줘요"라며 올해는 음식값을 인상시키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반면 제1본점집 주인은 "올해 25~50%정도 인상시킬 계획입니다"라고 밝혀 이미 음식값이 인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인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라면은 8백원에서 전원으로, 만두는 전원에서 1천5백원에서, 수제비와 칼국수에서 1천2백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된다. 부분적으로 물가조절에만 집중되



△학교 주변 물가 조절을 위한 학생회의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움직임이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대학주변 문화환경 조성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어지는 그런 단계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번 사업이 범 동국 차원의 생활문화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업주들과의 감정적인 대립이 아닌 근거제시를 통한 구체적인 의견도 검토해야 하며 대학주변 물가인상 정 및 진척된 문화조성을 위해 '불매운동'이라는 적극적인 방법도 생

각해 볼 만하다. 학생들의 조그마한 생활적인 일부터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등록금부족문제로 인해 이번 사업이 본격적인 출발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개강 이후에나 진행될 설문조사, 물가조절협의 등 구체적인 사업이 언제 실행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회부>

양용대는 교수제임용제

교수제임용제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학교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직위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교수제임용제'라고 부른다. 1975년 교수들의 무사안일한 근무지세를 지양하고 학술연구활동을 진작시키며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이 제도는 그동안 그 적용등의 문제점이 수없이 제기되면서 폐지의 요구가 높은 상태다.

다음이 사립대학의 경우 1990년 3월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종래 총학에게 있던 교원임용권을 학교법인에게 넘겨주면서 '학교법인의 정당한 권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53조 2 제3항)'고 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사실상 교수제임용에 관한

재임용시 연구실적을 심사의 비민주적요소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어 향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1990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상의 교수제임용제는 교수제임용수단으로 악용되는 특수조항임을 두번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재단의 임명권이 대폭 강화된 상태에서 여전히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는 교수제임용제도는 재단의 횡포로 간주하기에 충분하다. 수많은 사례 중에서 일례를 들자면 90년 덕성여대 성낙돈(교육학) 교수의 재임용탈락사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덕성여대에서 재임용 대상이 되었던 교수는 모두 23명이고 성교수는 논문실적 300점정도 재임용 대상교수중 논문실적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총장실명' 등의 터무니 없는 이유로 탈락되었던 것이다.

교수제임용제는 '교수의 자질을 높이고 학풍토도를 진작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성립되었지만 그 운영 과정은 지켜보면 거의 예외없이 학부주의의 진척과는 관계없는 교수에 대한 탄압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진척되지 오래다. 따라

교원신장·연구활성화 위한 장치 마련후 폐지 바람직

재단 구미에 맞는 임면사례 늘어

사학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진적으로 재단에 위임된 것은 교원의 신분보장은 물론이고 대학의 자율성 보장에도 크게 위협이 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본교의 경우 91년 황원호(철학) 교수가 극적변경을 사유로 재임용탈락된 이후 이렇다 할만한 재임용제외장 문제가 발생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 92년 2학기 일문과 김모교수의 승진, 재임용은 임용당시부터 물의를 일으켜왔던 현재 과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에 문제시되고 있는 김모교수의 경우 신규교수채용당시부터 비민주적·비합리적 과정을 통해 임명된 후 현재까지 정관에 규정된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인 9시간을 강하게 시달리던 재단장도 학생들의 거센 반발로 이뤄지지 못했다.

대학교원은 교원의 임용, 승진시 절차에 따른 연구실적을 소정의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실적을 심사는 해당 전공분야에 3인이상이 심사토록 되어 있으며, 심사대상자의 지위 이상의 자도 위촉하고 그 중 1인 이상은 타교에 위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석·박사학위 논문은 심사는 생략하며, 연구실적, 심사평점은 각 편이 평균 '우'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점을 감안할때 김모교수의 경우 학과생들이 반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승진

사학재단이 교수제임용제를 자의적으로 재단에 위임된 것은 교원의 신분보장은 물론이고 대학의 민주성과 사학의 자율성 보장에 대해 재단이 심사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현 교수제임용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나아가 사립학교법의 체계적은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상의 교수제임용제도의 악용은 재단의 교수신분 보장을 위협하는 악요소로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재단장에게도 재단장에게 '재임용될 사람은 탈락되고 탈락할 사람은 재임용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현 교수제임용제도는 재단의 구미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재단장 때부터 '행정의 원리'를 지키기 어려운 제도였다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서울대는 93학년도부터 교수들의 연구업적과 학내외의 학술활동을 승진인용심사 및 신임계약에 반영하는 이른바 '교수신사제'를 도입키로 결정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학교원의 75%가 사학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때 한국대학교육에서 사학이 담당하고 있는 몫은 엄청나게 크다. 이런 점에서 사학재단이 '교수제임용제'를 통해 인사권을 남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인환 기자>

다량관 복지매장 준비상황 3월개장...생활용품 코너 등 개설 매장관리형태 최종협의 곧 마무리될 듯



△다량관 지하복지매장이 오는 2월 개장될 예정이다. 그동안 학부위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매장건설 요구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활문화용품, 스포츠의류, 사진관등의 코너가 개설된다. 한편 해당 관 서점은 6월중 다량관 지하 복지매장으로 이전, 확장될 예정이다. <사진은 복지매장으로 이전, 운영중인 문방구>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김은현·회계3)는 89년 이후 복지매장 건설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량관 지하복지매장 건설에 착수, 오는 2월 전매장을 정상개업할 예정이다.

신규매장의 형태는 90, 91년 설문조사를 기초로 한 것으로 안경점, 문방구 등이 기존의 분식코너 내로 이전되고 안경점 자리에는 아트박스 형태의 생활문화용품 판매코너가, 이전 문방구에는 사진관이 각각 들어선다. 또 스포츠의류점도 새로 개설되고 오는 6월 중으로 혜화관 내의 서점이 이전돼 48평 규모로 설치·운영된다. 서점의 경우 설문조사때 최우선 개선과제로 대두돼 서점 이전 이후 기본적 할인을 적용 및 다양한 종류의 서적을 구비할 계획이다.

이번 복지매장 건설을 위해 학부위측과 학교 관계와 후생복지회는 그동안 몇차례의 회의를 거쳐 지난 18일 구두의 잠정적 합의를 보았다. 즉 업체선정권은 학부위가 소유하고 계약은 공동계약 원칙으로 하여 계약의 효력을 오는 24일 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합의사항은 첫째, 사진관, 동국가든, 스포츠의류점화점의 업자선정권은 학부위가 소유하고 학부위 위원장과 관리직원이 공동 계약권을 가지는 형식을 취한다. 둘째, 위 3개매장의 복사실, 기획사, 컴퓨터 전자매장 등 위탁관리 운영매장의 회계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셋째, 임대료 및 매장수익금은 기본적으로 학부위 사업금으로 제부처된다. 현재 학부위측은 위의 합의사항에 따라 매장입찰 및 계약서 작성 등의 작업에 착수 중인데 후생복지회는 당일 회의에서 학생들에게 업자선정권 양도의 뜻을 밝혔으나 재점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학부위측과 학교당국의 계속적인 의견차이는 학부위측의 학생단체 업자선정권소유 주장과 학교측의 공동계약 주장에서 비롯됐다.

학부위가 업자선정 등의 권한을 학생단체로 소유하려는 이유는 계약권소유가 단순한 매장관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학사행정에 학생참여의 교두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앞으로 학생들의 매장에 대한 개선 및 개장요구를 쉽게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호애 기자>

중앙도서관이용안내

'93학년도 1학기부터 도서 대출 반납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중앙도서관 이용방법이 크게 변경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용을 안내하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 음

- 출입자 통제
 - *바코드가 인쇄된 학생증 미소지자는 출입 불가
 - *등록후 학생처 장학과에서 새 양식의 학생증을 발급 받기 바람.
- 도서 대출 반납
 - *학생증에 인쇄된 바코드 이용 (3차 등록 마감일까지 2, 3, 4학년은 도서차량증 사용 가능)
- 대학원생, 조교
 - 대학원생중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열람과(도서관 2층)에서 바코드 라벨을 발급 받아 학생증에 부착 사용함.
- 도서관 출입자 통제가 강화되면(93. 5. 1. 부터) 입구에서의 많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총학생회의 강력한 요구로 시행되는 제도로써, 과도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도서관 면학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계기로 도서관에서도 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일반휴학원 접수

93학년도 제1학기 일반휴학원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 접수기간: '93. 3. 2(화)~3. 5(금)
- 접수장소: 학과과
- 대상자: '93. 2월말 현재 재학생으로서 가사 또는 개인 사정으로 휴학을 원하는 자.
- 구비서류: 일반휴학원(소장양식, 보호자 연서)
- 일반휴학기간은 1년간이며 연속휴학은 불가하고 휴학기간 만료후 복학하지 않는자는 제적됨.

교무처장

수강신청 확인 공고

'93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확인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간: '93. 3. 8(월)~3. 10(수)
- 장소: 대학교육과, 학과
- 대상: 전교생(이반학기 복학, 재입학생은 위기간에 수강신청)
- 유의사항: 가. 수강신청의 임의변경(취소, 추가)을 할 수 없음. 단, 전선처리유사분반, 폐강으로 인한 강좌변경등의 부득이한 경우만 정정가능함. 나. 교과목, 학수번호, 강좌번호 및 담당교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교무처장

전과 실시 안내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공급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전과를 실시합니다.

아 래

- 모집학과 및 인원
 - 전자공학과(6명), 컴퓨터공학과(12명), 전기공학과(5명), 화학공학과(4명), 산업공학과(10명), 기계공학과(6명)
- 모집학년: 2학년
- 지원자격
 - 가. '93학년도 3월2일 현재 본교 자연계학과 2학년 재학생으로서
 - 나. 1학년 학기당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총취득학점이 36학점 이상이며
 - 다. 1학년 총성적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
- 제출서류
 - 가. 전과원서 1매 (소장양식)
 - 나.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다. 사진 3X4cm (반명함) 1장(1개월이내 촬영한것)
 - 라. 전형료 30,000원
- 원서교부 및 접수
 - 가. 기간: '93. 3. 3(수)~3. 4(목) 17:00까지
 - 나. 장소: 소속대학 교학과
- 전형일시: '93. 3. 10(수) 09:00-
- 전형방법: 영어, 일반수학, 면접, 서류전형
- 전형장소: (본관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대학 교학과로 문의할 것.

교무처장

공 고

'93학년도 신입생들에게 조기졸업 및 초과학점취득기회를 부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특별시험을 실시하나, 희망학생은 소정기간내 응시원서를 제출하기 바람.

- 시험과목: 3과목

이수구분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공동필수	21101	국어강독 및 작문1	2
공동필수	22103	영어1	2
영역필수	41121	일반수학1	3

- 응시자격 및 과목
 - 가. 자격: '93학년도 신입생('93학년도 1학년 복학생 포함)
 - 나. 과목: 3과목중 2과목까지
- 시험일시: '93. 3. 6(토) 09:00~11:50
 - *과목별 고사시간 후후확정 공고함. ('93. 3. 5(금) 14:00경)
- 원서교부 및 접수
 - 가. 기간: '93. 3. 2~3. 5(4일간)
 - 나. 장소: 교무과
- 합격자 발표: '93. 3. 9(화)

교무처장

박사학위

◇서인열 (철학박사) = 法華經方便品에 관한 연구 ▲57년생 ▲본교 승가학과 ▲86년 생 ▲91년 조계종 이리 관음사 주지

◇김명실 (철학박사) = 唯識學의 心識構造에서 본 意識의 心識構造에 대한 연구 - S. Freud와 C. G. Jung의 성격이론과 관련하여 ▲53년생 ▲본교 불교학과 ▲90년~현재 본교 불교학과 강사

◇이태영 (철학박사) = 고전 역사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연구 - 요가브라흐마를 중심으로 ▲55년생 ▲승실대 철학과 ▲92년 2월~8월 승실대 철학과 시간강사

◇이진 (문학박사) = 퇴계성리학의 시론학적 변용양상연구 ▲56년생 ▲본교 국문과 ▲86년~92년 본교강사

◇오명기 (문학박사) = Licensing Conditions on Negative Polarity Items in English ▲59년생 ▲제명대 영문과 ▲89년~현재본교 경주캠퍼스 영문과 강사

◇정근순 (문학박사) = Shakespeare의 Lancastrian Tetralogy에 나타난 왕도의 실상과 허상 - 아이러니기법을 중심으로 ▲51년생 ▲전북대 영문과 ▲88년~현재 한양대 영어과 시간강사

◇정구선 (문학박사) = 조선 시대의 蔚山府에 대한 연구 ▲55년생 ▲본교 사학과 ▲92년 3월~현재 본교 사학과 강사

◇유마리 (문학박사) = 한국 觀經變相圖와 중국 觀經變相圖의 비교 연구 ▲52년생 ▲본교 불교미술학과 ▲81년~현재 본교 미술학과 강사

◇김형우 (문학박사) = 고려시대 국가적 불교행사에 대한 연구 ▲55년생 ▲본교 사학과 ▲88년~현재 서울특별시 문화재감정관

◇선혜영 (철학박사) = 비트겐슈타인에 있어서 유아론과 사물언어 불가능 논증에 관한 고찰 ▲56년생 ▲본교 철학과 ▲82년~84년 본교 문과대 조교

◇한세정 (교육학박사) = 대학 교양교육의 이념적 準據에 관한 연구 ▲50년생 ▲본교 사범대학 ▲88년~90년 한국교원대 제1대학 시간강사

◇이원우 (교육학박사) = 교육(敎育)의 교육발전에 대한 호



서인열 박사



김명실 박사



이태영 박사



이진 박사



오명기 박사



정근순 박사



유마리 박사



김형우 박사



선혜영 박사



한세정 박사



이원우 박사



오명기 박사



정근순 박사



유마리 박사



김동환 박사



이재민 박사



김창환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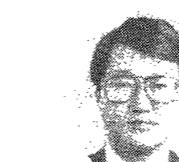
손 윤 박사



홍중식 박사



고정대 박사



심규박 박사



정훈준 박사



이경식 박사



목춘수 박사



안태근 박사



이근광 박사



김홍식 박사



이광직 박사



공희식 박사



임계재 박사



정기범 박사



김윤환 박사



양주호 박사



김친욱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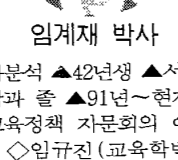
이상협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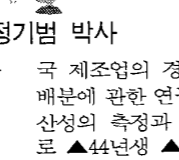
박원환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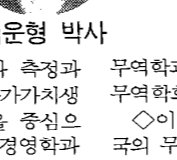
윤중화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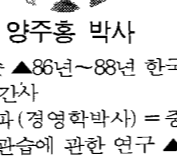
박범석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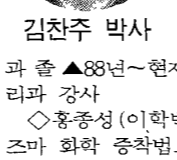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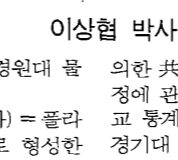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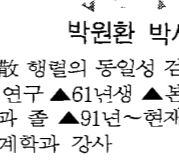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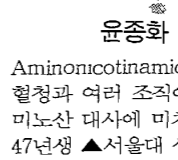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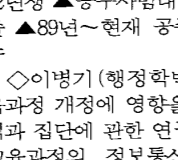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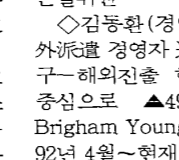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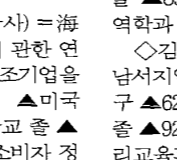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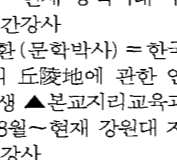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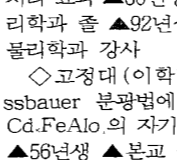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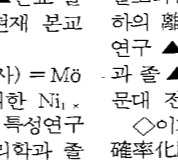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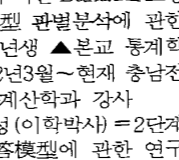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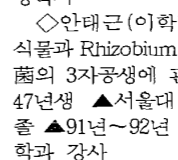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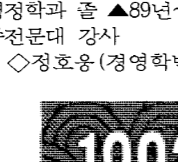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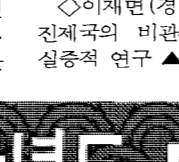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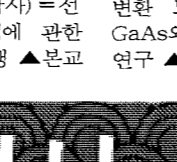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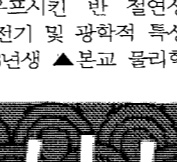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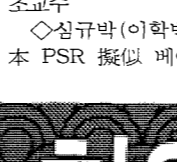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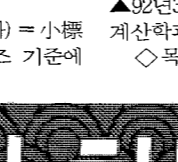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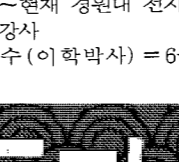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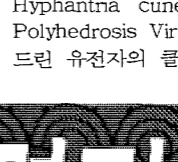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이희진 박사



이희진 박사



이희진 박사



이희진 박사



이희진 박사



이희진 박사



이희진 박사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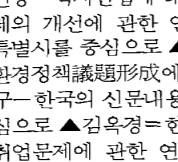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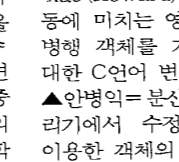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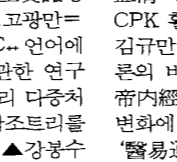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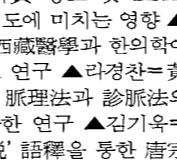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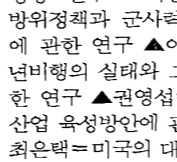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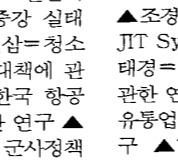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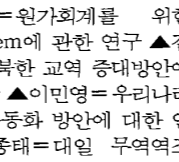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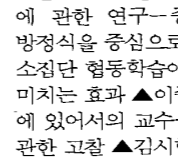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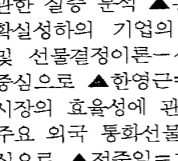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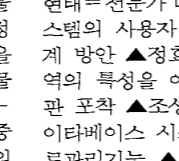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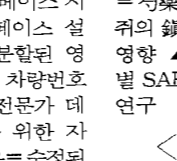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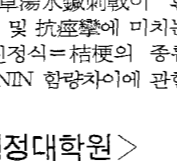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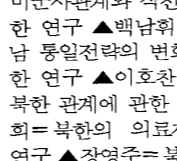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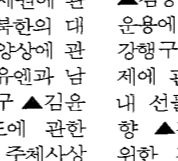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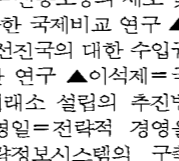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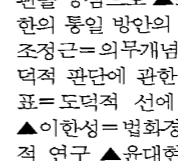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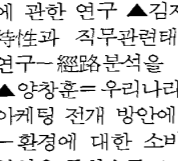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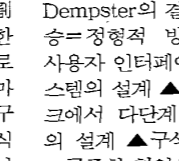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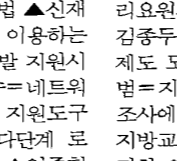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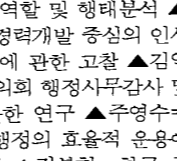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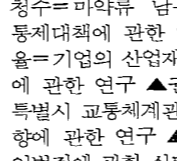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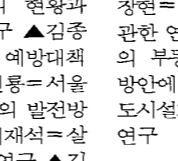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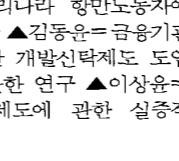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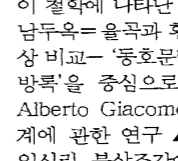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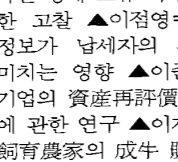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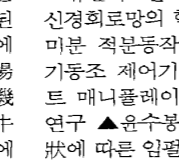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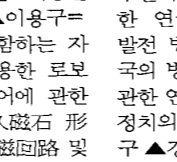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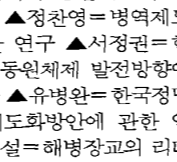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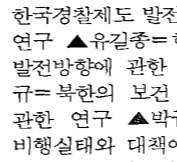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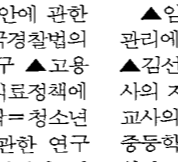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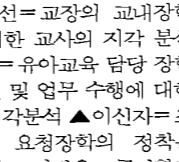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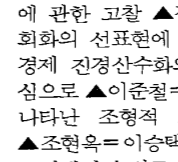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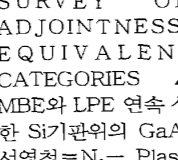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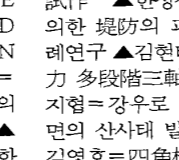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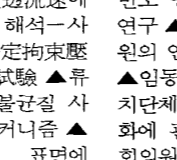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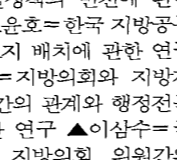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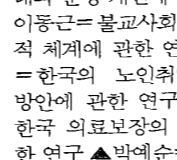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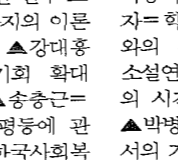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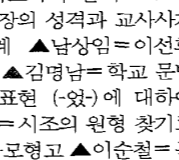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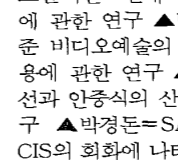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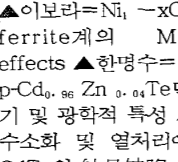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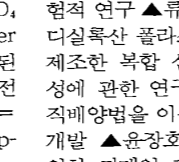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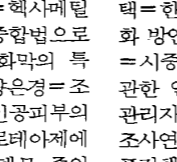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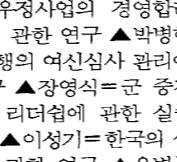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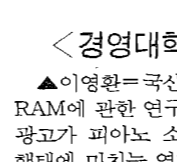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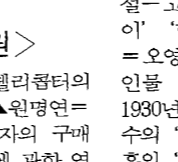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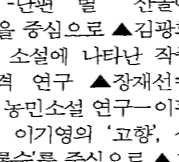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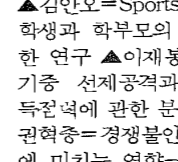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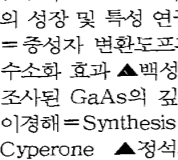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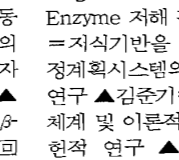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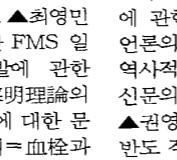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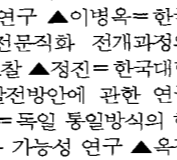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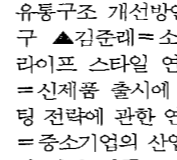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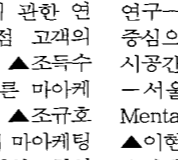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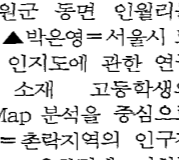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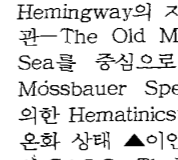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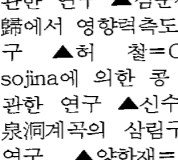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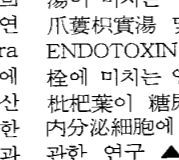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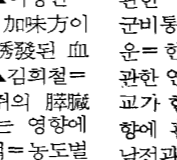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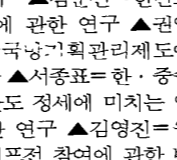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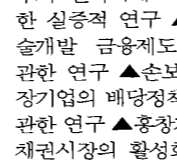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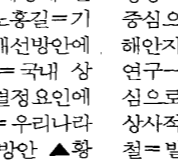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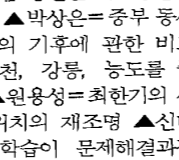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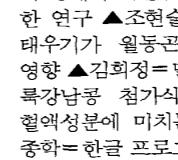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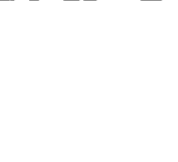
이희진 박사



이희진 박사



이희진 박사



이희진 박사



이희진 박사



이희진 박사



이희진 박사



이희진 박사



이희진 박사



이희진 박사



이희진 박사



이희진 박사



이희진 박사



이희진 박사



이희진 박사



이희진 박사



이희진 박사

학교당국 등록금 고지서 합의발부에 동의

인상률 인하 탈피-재단의 재원마련 방도 제시필요

4차례에 걸쳐 등록금협상이 진행되었음에도 학교당국과 학생회측은 여전히 17.5%의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교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협상에서 학생측 대표들은 학교측이 인상률의 근거로 제시한 '92회계년도(12월31일까지) 정산내역서' 중 각항의 액수 합과 서류에 기재된 총액의 액수가 맞지 않는 점을 들어 자료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측 실무대표자들은 행정상 착오라고 해명했다. 이날 학생측은 학교측이 공개한 관·항만을 다른 '92 회계년도 자금운용예산안' 등의 자료

를 기초로 등록금분화환산수익이나 분당별 건립비 비롯한 학교건립 신·증축 비용 예산 내역인인 '건설가계정'항으로 작년 대비 40%인상률을 책정하고 있는데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했다.

또한 경주학자부위원장 이승준(경제3)군은 "건설가계정 항목은 근본적으로 재단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 아니냐"고 반박하며 경우 투자액수통계가 불분명함을 지적했다.

이에 학교측 차관부 예산과장은 "학교 회계년도가 2월28일까지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이 결산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학생측은 세부내역이 공개되

지않은 대략적 내용의 예·결산 서류가 학교측의 등록금 인상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5차 협상 날짜로 잡혀있는 오는 25일까지 세부내역이 첨가된 예·결산 자료를 요구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에서 일단 학교측과 학생측은 '합의하에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한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92년 예산결산 자료 공개를 통한 인상률 근거에 대한 의의를 진행하고 재정확보방안 마련과 이에 따른 재단전입금 확충에 대한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25대 총학생회 등록금 책정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상호(부총학생회장·아간부3)군은 "그동안의 등록금 부정은 근본적 재정확보에 주력하지 않고 인상률의 인하에 초점을 맞춘 한시적부정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며 "이번 등록금협상은 인상률 5% 인하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재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며 건설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록금

협의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총학생회측은 인상률 근거에 대한 학교측과의 논의를 계속 진행시키면서 재단측의 협상참여 및 전입금확보 방안 등을 요구할 입장을 밝히고 있어 합의발부의 원칙이 지켜지는 한 등록금 고지서 발부시일은 당분간 늦춰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3차협상에서는 경주부총장 임명 문제로 진계를 받은 경주 총학생회측의 발언권 문제로 협상이 결렬됐다.

'새내기 새로 배움터' 열려 '참삼 나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제25대 총학생회(회장=최순호·국과4) 주최 새내기 새로 배움터가 '참삼 나 그리고 우리'라는 주제로 비지(간원도 속초소세)에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 2차에 걸쳐 신입생·재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새로배움터는 작년과 같이 불교대학 제외와 10개 단과대가 1진(사법대, 야간강과, 이과대, 사과대, 농과대)과 2진(문과대, 공과대, 예술대, 경상대, 법과대)으로 나뉘어 실시됐다.

최순호 총학생회장은 임교인

사람을 통해 "민족통국 중흥의 길에 새내기 여러분이 함께 걸 수 있길 바란다"고 신입생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총학생회측은 "그간 숨겨져 있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나아가 자신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자주성의 고양과 집단속에서 조화, 조율되는 민주주의의 통일, 단결을 배우는 것 배움터"라고 새로배움터의 의의를 밝혔다.

중앙행사로는 한 해적교사가 겪어 보는 생활의 어려움과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정의를 지켜나가기에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투쟁생활을 소개한 탈과 아리랑의 합동공연 '해맑은 웃음을 위해'가 펼쳐졌다.

한편 불교대 신입생·재학생 등 1백여명은 총학생회와는 별도로 속산 법주사에서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간의 새로배움터를 가졌다.

한편 경주캠퍼스 93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예비학교는 지난 21일부터 각 단과대학생회 주최로 부문관방담장내 정주월드 방파제촌 일대에서 신입생 및 재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예비학교는 예전과는 달리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공약으로 제시됐던 예비대학 단과대별 실시에 따라 개교된 상경대 학생회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인문대, 법과대, 자연대, 의대 학생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행사를 가진다.

투쟁생활을 소개한 탈과 아리랑의 합동공연 '해맑은 웃음을 위해'가 펼쳐졌다.

한편 불교대 신입생·재학생 등 1백여명은 총학생회와는 별도로 속산 법주사에서 15일부터 18일까지 3박4일간의 새로배움터를 가졌다.

한편 경주캠퍼스 93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예비학교는 지난 21일부터 각 단과대학생회 주최로 부문관방담장내 정주월드 방파제촌 일대에서 신입생 및 재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예비학교는 예전과는 달리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공약으로 제시됐던 예비대학 단과대별 실시에 따라 개교된 상경대 학생회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인문대, 법과대, 자연대, 의대 학생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행사를 가진다.

△학생회 취업계정=이우용 △총무처 총무계정=안준호 △불교대학원 교학계정=박광호 △행정대학원 교학계정=이광구 △경원대학원 교학계정=구태희 △교육대학원 교학계정=이건배 △농과대학 교학계정=오광진 △농과대학 교학계정=이근배 △사법대학 교학계정=김영인 △중앙도서관 사서계정=김동환 △중앙도서관 수서서부계정=임병수 △비서실=윤동규 △기획조정실 홍보부=홍병성 △교무처 교무부=박만규 △교무처 학부=이창학 △학생처 장학과=김태우 △총무처 총무부=이정수 △관리처 구매과=김성진 △관리처 구매과=손태순 △사법대학 교학과=윤영식 △총무처 총무과(노동조합 합과) =김윤성 △정각원=성춘호 △기획조정실 홍보부=홍병성 △총무처 총무과=성유경 △경원대학원 교학과=김명숙 △총무처 총무과(노동조합합과) =정경숙 이상 2월22일자.

중앙도서관 전산화 공사 대출반납 자동처리 효과

본교 중앙도서관(관장=김보환·경향행정학) 전산화 공사가 지난 12월 24일 마무리되어 정상가동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공사는 출입자관리를 위한 출입통제기 설치 및 전 도서관에 비코드를 부착하는 일련의 작업을 비롯해 실내조명공사, 1층열람실 방음벽 시설 공사 등으로 이뤄졌다.

도서관의 전산화시스템화를 위한 분공사에 대해 도서관 일련과 김중철계장은 "대출시 일일이 기록하는 이용자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도서대출 전산화기기의 도입으로 인원절감 등 도서관업무의 효율성을 높

혔다"고 말했다.

한편, 타대학의 경우 대출반납의 자동화와 더불어 도난방지기가 설치된다는 비하 본교는 그 설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가 자신의 책을 실내에 들고 갈 수 없는 불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출입통제기를 비롯한 전제도서관 전산화시스템의 가동은 동물이 끝난 이후, 비코드가 부착된 학생증이 일체화 발부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정상적인 전산화는 오는 5월경이나 이루어질 전망이다.

1천 86년 경주캠퍼스에 신설된 의과대학 의과대학에서는 지난 1월13일 치뤄진 '의사 국가 시험'에서 100%의 합격률을 보였다.

92년 처음으로 97.3%의 합격자를 배출해 90%상회의 높은 합격률을 보인데 이어 올해 전국 33개 의과대학중 제명대 등 29개대학과 함께 전원 합격하는 학교가 됐다.

의사국가시험 100% 합격률 보여

1천 86년 경주캠퍼스에 신설된 의과대학 의과대학에서는 지난 1월13일 치뤄진 '의사 국가 시험'에서 100%의 합격률을 보였다.

92년 처음으로 97.3%의 합격자를 배출해 90%상회의 높은 합격률을 보인데 이어 올해 전국 33개 의과대학중 제명대 등 29개대학과 함께 전원 합격하는 학교가 됐다.

경주캠퍼스 <취직유진>

△사무처 경리과장서리=오중호 △도서관 열람과장서리=남 준 이상 2월18일자.

△교무처 학제과장서리=김치일 △사무처 관제과장서리=문재욱 △의과대학 교학계장서리=박희우 △도서관 사서계장서리=배용학

△전보 △학생처 학생계장=이상기 이상 1월14일자.

△기획홍보과장=선성규 △교무처 교무과장=오복용 △교무처 학제과장서리=김용기 △학생처 학생과장=이중석 △도서관 사서과장서리=최철환 이상 2월18일자.

△기획홍보과장=신태용 △교무처 교무계장=신익홍 △교무처 수업계장=채찬호 △사무처 총무계장=성명철 △사무처 학생복지계장=송익근 △지역개발대학원 교학계장=정성호 △법정대학 교학계장=권대용 △부속실=김영호 △교무처 학제과=정문환 △학생처 학생과=이진형 △학생처 장학과=한동주 △사무처 관제과=김종규 △기숙사=김경호 △사무처 총무과=양진호 △도서관 열람과=박경희 △지역개발대학원 교학부=김영숙 △사무처 총무과(우체국 과) = 박옥선 이상 2월22일자.

경주캠퍼스 <취직유진>

△사무처 경리과장서리=오중호 △도서관 열람과장서리=남 준 이상 2월18일자.

△교무처 학제과장서리=김치일 △사무처 관제과장서리=문재욱 △의과대학 교학계장서리=박희우 △도서관 사서계장서리=배용학

△전보 △학생처 학생계장=이상기 이상 1월14일자.

△기획홍보과장=선성규 △교무처 교무과장=오복용 △교무처 학제과장서리=김용기 △학생처 학생과장=이중석 △도서관 사서과장서리=최철환 이상 2월18일자.

△기획홍보과장=신태용 △교무처 교무계장=신익홍 △교무처 수업계장=채찬호 △사무처 총무계장=성명철 △사무처 학생복지계장=송익근 △지역개발대학원 교학계장=정성호 △법정대학 교학계장=권대용 △부속실=김영호 △교무처 학제과=정문환 △학생처 학생과=이진형 △학생처 장학과=한동주 △사무처 관제과=김종규 △기숙사=김경호 △사무처 총무과=양진호 △도서관 열람과=박경희 △지역개발대학원 교학부=김영숙 △사무처 총무과(우체국 과) = 박옥선 이상 2월22일자.

경주캠퍼스 <취직유진>

△사무처 경리과장서리=오중호 △도서관 열람과장서리=남 준 이상 2월18일자.

△교무처 학제과장서리=김치일 △사무처 관제과장서리=문재욱 △의과대학 교학계장서리=박희우 △도서관 사서계장서리=배용학

△전보 △학생처 학생계장=이상기 이상 1월14일자.

△기획홍보과장=선성규 △교무처 교무과장=오복용 △교무처 학제과장서리=김용기 △학생처 학생과장=이중석 △도서관 사서과장서리=최철환 이상 2월18일자.

△기획홍보과장=신태용 △교무처 교무계장=신익홍 △교무처 수업계장=채찬호 △사무처 총무계장=성명철 △사무처 학생복지계장=송익근 △지역개발대학원 교학계장=정성호 △법정대학 교학계장=권대용 △부속실=김영호 △교무처 학제과=정문환 △학생처 학생과=이진형 △학생처 장학과=한동주 △사무처 관제과=김종규 △기숙사=김경호 △사무처 총무과=양진호 △도서관 열람과=박경희 △지역개발대학원 교학부=김영숙 △사무처 총무과(우체국 과) = 박옥선 이상 2월22일자.

경주캠퍼스 <취직유진>

△사무처 경리과장서리=오중호 △도서관 열람과장서리=남 준 이상 2월18일자.

△교무처 학제과장서리=김치일 △사무처 관제과장서리=문재욱 △의과대학 교학계장서리=박희우 △도서관 사서계장서리=배용학

△전보 △학생처 학생계장=이상기 이상 1월14일자.

△기획홍보과장=선성규 △교무처 교무과장=오복용 △교무처 학제과장서리=김용기 △학생처 학생과장=이중석 △도서관 사서과장서리=최철환 이상 2월18일자.

△기획홍보과장=신태용 △교무처 교무계장=신익홍 △교무처 수업계장=채찬호 △사무처 총무계장=성명철 △사무처 학생복지계장=송익근 △지역개발대학원 교학계장=정성호 △법정대학 교학계장=권대용 △부속실=김영호 △교무처 학제과=정문환 △학생처 학생과=이진형 △학생처 장학과=한동주 △사무처 관제과=김종규 △기숙사=김경호 △사무처 총무과=양진호 △도서관 열람과=박경희 △지역개발대학원 교학부=김영숙 △사무처 총무과(우체국 과) = 박옥선 이상 2월22일자.

93학년도 1학기 신규교원 프로필

 황훈성 조교수	 정창근 전임강사	 박선동 전임강사
 정성호 조교수	 이효웅 조교수	 신홍욱 전임강사
 박준상 전임강사	 장연수 전임강사	 박원환 전임강사
 박태준 조교수	 박상진 전임강사	 김정호 조교수
 박봉서 전임강사	 안선신 조교수	 배한기 조교수
 이판제 전임강사	 이명영 전임강사	 서정욱 교수
 김남번 전임강사	 오명석 전임강사	 이선희 조교수

새내기의 속살이
○새봄의 시작은 강남계비가 맑고 오지만 새하얀 신선한 새내기들도 이해 시작될 터인데, 비야호로 새시기를 맞이하기에 바쁜 절이 다시 도래했었거늘, 현실구, 새시기를 모인 자리가 곱게 비치지 않는 않아.

각 과마다 신입생활의 지리를 가지면서 호호호호의 화기에 애한 분위기로만 일관했으면 더욱 좋으련만, 여지없이 주연(酒宴)은 또 벌어지고 말았어.

대우이 웬 고상방가이다 왕 반대대(?)을 부치는 선배들을 보고 대학에 첫발을 딛는 진짜 주연(主演)들의 기분은 어떠하겠습니까?

맥빠진 교수총회
○93학년도 1학기 서울

캠퍼스 교수회 정기총회가 열린 지난 22일 회의장은 등록금협상을 염원하는 교수들의 열띤 장소로 보기에 미치지 못하리라 해.

올해초부터 제 몇몇 학교당국의 인사권문제의 비합리성을 지켜보고도 두뚝한 문제의식이 상실된

맥빠진 교수총회...임명상의 비민주적 요소 수수방관

재 지질구배한 것에만 얽매는 모습에 상실감만 늘어. 교수회가 진정한 등록금발전의 공시기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교수회를 구성하는 일개 개인의 발전적인 문제의식을 통한 단일한 목소리의 합창이 중요해. 경주캠퍼스부총장 신승, 행정대학원 교수임명의 근거 및 절차에 대한 철저한 규제는 하나도 모야내어지지

등합...웬 자격권 서비
○지난 11일 등록금 협상이 열린 서울 교무위원회 회의에서는 때아닌 자격권이 날 자격이 없거나 협상이 정당한 자격이 있는 소동이 벌어졌다는데, 사연인즉 경주

캠퍼스 학생처장이 경주캠퍼스 대표로 협상중인 총학생회장과 학자부 위원장이 부총장실 폐쇄의 책임을 물어 징계중이란 이유로 학생의 자격이 없다며 협상참여를 불허했다는 사연이다.

지금쯤은 중징계처리가 풀린 것 했지만 협상대표의 자격권문제로 장시간에 걸쳐 등록금협상이 아닌 자격권 협

상을 한것은 어전지 일의 순서를 명각한 소치가 아닌지 볼수없해.

6공 경제성적 'F'
○요즘 하늘높은 줄 모르고 뛰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각종 공공요금이나 그야말로 경중경중 인상되는데 대해 서민들 한숨섞어 한마디씩.

물가는 연속적인 정비에 상승폭을 보이는 반면 서민들의 허리는 연일 가작준이다 경제성장 폭선은 급격히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분 회전부대자 "아마도 이 그래프를 본 기만적 6공정권, 한기라도 상승한 것 같지 않나? 구여운(?) 역지를 부릴것 같다"고 염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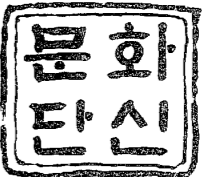
상을 한것은 어전지 일의 순서를 명각한 소치가 아닌지 볼수없해.

6공 경제성적 'F'
○요즘 하늘높은 줄 모르고 뛰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라 각종 공공요금이나 그야말로 경중경중 인상되는데 대해 서민들 한숨섞어 한마디씩.

물가는 연속적인 정비에 상승폭을 보이는 반면 서민들의 허리는 연일 가작준이다 경제성장 폭선은 급격히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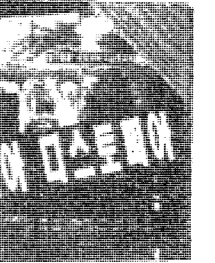
이제 분 회전부대자 "아마도 이 그래프를 본 기만적 6공정권, 한기라도 상승한 것 같지 않나? 구여운(?) 역지를 부릴것 같다"고 염려.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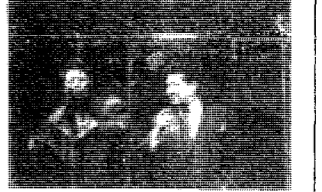
<와규정동> 유평티아 디스포티아·90년대 우리나라의 문화풍속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와규정동'을 다룬다



문화적 시각에서 분석, 조망하는 작품으로 '와규정동'의 문제설정 한국 자본주의의 유망 '와규정동' : 역사의 역사와 아이들의 미학 '와규정동'은 시대정신이다' 등이 실려 있다. <현실문화연구 > 8번5백원

공연 안내

<문 밖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한 대서사시. 특히 컴퓨터음악으로 전연 작곡한 국의 전면에 호르는 음을 한 시구, 음향·무대 효과는 현대인의 피폐된 정신세계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3월31일까지 오후 4시30분, 7시30분, 대학로 동승아트센터 소극장. 741-3391



강습회

<풍물 초보강습> 3월1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오후7시. 풍물굿재 살판 652-2953

<bonsalsh 강습회> 4월1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7시. 흥사단 강당. 743-5445

70년에 본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부임하여 23년동안 외국의 강단길을 걸은 최세화(국어교육) 교수는 길고 추웠던 겨울을 보내는 심정과 달리 후진양성의 긴 시간들을 마감해야 한다. 그동안 학생처장, 사범대학장, 교육대학원장, 박물관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학문 외의 학교행정에도 능력과 애정을 보여준 최교수는 의외로 퇴임을 맞으면서 담담한 표정으로 일관했다. "교수의 가장 큰 임무는 연구, 교수, 봉사인데 그 임무들에 충실할



최세화 국어교육과 교수

고심했다"면서 "앞으로 학교일에도 학생전체의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 사범계의 교직원에 대해 "초·중·고교의 한 학급당 정원수를 줄이는 대신 학습수를 늘이는 것도 교직원 해소의 한 방법일 수 있으며, 사학전체를 위한 교육부지가 대폭 확대돼야 될 것"이라고 역설한다.

사범대교수로서 느끼는 현 대학 내 스승·제자 사이의 풍토를 묻는 기자에게 "비교적 양호하다고 여긴다. 일부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확대시켜 굳이 문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는 교수의 긍정적인 대답이 대학내 진정한 사제사이가기를 바래본다.

"교육부리지 말고 자기 능력껏 꾸준히 노력하는 생활"을 신조로 삼고 산다는 최교수는 퇴임 후에는 기존 연구분야를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학생시절부터 동국대를 떠난 적이 없었던만큼 계속 동국의 발전을 지켜보는 한편으로, 서예학에도 살려 여가를 즐길 계획이라고. <최호애 기자>



길전 건축공학과 교수

"당연히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거나 섬세한 마음은 없다"고 24년 제직기간의 퇴임소감을 간단히 밝히는 길전(건축공학) 교수는 인터뷰시중 젊은이같은 활기와 인자한 할아버지의 웃음된 분위기로 찾아간 기자마저 편하게 해 주었다.

지난 69년 본교에 부임하여 공과대학장 등을 역임하면서 동국발전의 남다른 관심을 가져온 길교수는 "교수모집에 있어 종교의 강요때문에 우수교수를 놓치는 경우가 안타

깝다. 불교계종단학교라는 편협한 이미지를 고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학교발전에 대한 조심스런 의견을 전다.

현재 근 7년동안 집행해 온 '건축구조학'이라는 전문서적이 교정과정에 있다는 길교수는 "이 책이 그동안 실제실현한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쓰여져 본교 졸업생 및 건축사적의 기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믿으며 개인적으로도 자랑거리"라고 말한다.

노교수의 건강을 염려하는 기자에게 "매일 아침 철봉을 하고 등산도 가끔씩 해서 건강은 자신이다"고 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최고라고 느낄 때는 모험에서 공대교수의 일반

독서분위기 정착... 일회용 문화 불식

얕과 함께하는 참된 즐거움

술에 힘쓰고 싶다고 피력한다. 비록 강단생활은 낙화의 시기를 맞지만 인생의 꽃은 언제고 다시 필 수 있음을 퇴임을 앞둔 지금에도 앞날의 삶에 게으르지 않는 노교수에게서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철이 덜 들어서 인생관이 덜 정해졌다"는 친근하지만 조금은 어리둥절한 말 끝에 "인생을 즐기어야 한다. 참은 즐거움도 아는 속에 즐거움이 있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는다.

항상 동국인 곁에 있을 터

만큼 충실하지 못한 것이 다만 어렵고, 건강이 좋지 못함에도 큰일없이 이렇게 퇴임을 맞는 것이 스스로도 대견하고 자축하고 싶다"고 퇴임의 변을 밝혔다.

동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교수진을 영입하는 등 변혁운동 조성"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며, 행정사무직의 능률화를 기하는 방법을 찾는

한편, 도교발전을 위한 총동창회의 실질적·적극적 노력의 선행도 중요하다"고 세세하게 일러주는 모습에서 최교수의 평소의 꼼꼼한 성격이 엿볼 수 있다.

재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묻는 질문에 "학생처장 당시 학생회 부활을 주장하는 측과 학도호국단과의 일력을 무마·조정하는 일에



정년퇴임 교수들 만나

"가야할 때를 이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심재후 화학공학과 교수

"교수직을 졸업(?)해서 섬세하지만 당분간 강의는 계속 맡을 생각입니다"라는 말로 퇴임소감과 동시에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는 심재후(화학공학) 교수.

그동안 36년이라는 오랜 교단생활을 마치며 정년을 맞이하는 노교

수의 한마디마다 세월의 지나감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다. 인기몰이 때로는 평교수의 한 사람으로 때로는 대학운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공대학장, 산업과학기술연구소장, 과학관장등의 모습으로 대학발전을 위해 그간의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활동해왔다.

본교의 발전에 대해서 심교수는 "재단이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학교의 큰 기둥이 되어야 하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우리대학이라는 주인공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항상 '호연지기'의 배양을 학생들에게 강조하면서 동국인이라는 긍지를 가져주길 당부한다.

오늘의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스승의 그림자도 못 밟았던 옛 방식은 바라지도 않음

은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람직한 대학문화의 상을 묻는 질문에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다. 상이랄적인 대학의 면모를 피땀 흘려 공부하는 대학으로 일신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한다.

주관을 갖고 자기계발에 힘쓰길

재단의 적극적 지원 필요

일본에서의 학교시설이 이라고도 학교에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있는 철학책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려 졸업이 가능했던 것을 회상하며 자신의 전공 이외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

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바람직한 대학문화의 상을 묻는 질문에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다. 상이랄적인 대학의 면모를 피땀 흘려 공부하는 대학으로 일신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한다.

주관을 갖고 자기계발에 힘쓰길

재단의 적극적 지원 필요

이 필요함을 할수없었던 그 암담한 현실을 또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6백만 농민의 생명을 담보하는것과 다를바 없는 것이다. 세계 제일의 공업국인 이웃나라 일본에서조차 갖가지 보조금을 주어져서 농업보호, 농업발전에 관동하는 현실과 비교하면 우리정부의 농업정책은 밑바닥을 헤맨지 오래다. <강대국의 쌀개발정책에 못이겨 어쩔수 없이 쌀을 수입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그동안 농산물을 수입으로 엄청난 돈을 번 특권지배의 이익을 더이상 정부가 보호해주는 차원은 6백만 농민의 이름으로 지 지되어야 마땅하다. 한 나라의 농업정책이 결코 농민들의 문제와 아닌 이나라의 농업은 더이상 파멸의 길에 놓이게 할수 없다. '쌀수입 금지'만이 이나라가 살길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길때다. <최결인 >

알아들시다 복학업무

복학은 매학기 초 개학일부터 10일 이내에 한하여 허가한다. 병사휴학자는 제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며, 군에 복부하는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는 소속부대장이 발행하는 전역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복학할 수 있으나 제대일로부터 개학일부터 30일 이내의 자에 한한다.

한편, 일반휴학은 연속해서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1993년도 1학기 복학업무는 2월26일(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까지 학적과에서 실시하며 구비서류는 복학원서(학적과) 1부,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전역예정서(전역예정자 3월31일 이전) 1부, 본인도장 등이다.

복학처리를 살펴보면 복학원(한학기 휴학자는 정색용지)을 제출하고 3월5일까지 복학허가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후 경리과에서 등록을 하고 3월8일부터 10일까지 해당대학 수강신청을 하도록 한다. 단, 이전에 등록을 마치고 휴학한 자는 경리과에 복학허가서를 제출하고 영수증과 교환한다.

한편, 군휴학자중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복학원서를 제출한후 3월2일부터 5일까지 휴학원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문화부>

투고를 환영합니다

본사 문화부에서는 동국인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과 생활이 담긴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 소설, 수필, 장트 등 모든 부문에 독자 여러분의 관심 어린 참여를 기대합니다.



최결인 <14>



▲농촌이 죽어가고 있다. 농사짓기가 힘들다고 농촌을 떠나 도시로 나온 젊은이들의 마음의 고향은 이제 차츰 퇴색되어 간다. 고향산천에 홀로 남아 지키는 노부부들의 한숨은 늘어만 가고 한 학기위를 맞이하려는 희망도 이제 사라져 가고 있다. 농촌의 노총각들은 장가가기도 힘든 현실. 누가 농촌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올해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미국의 쌀개방 압력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젠 시골농촌에서 밭을 재배하는 농가를 눈짓고 찾아 보기 힘들다. 밭농사가 힘들어 개방압력으로 망한것처럼 쌀농사의 앞날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6공정부의 일관된 농업정책(?) 정책이 험악이 이제 농촌의 풍요로운 모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수입 농산물을 제사상에 올려놓고 지내 는 웃지 못할 현실 앞에 행정부와 차

쌀개방 못한다

기정부의 관계자들은 '쌀수입 대 세관'을 강조한다. GATT 사무총 장과 미국 도정협회장의 입에서는 '한국이 쌀수입개방을 약속했다'는 말이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대세라던 머지않아 한반도는 쌀소비에 있어서도 식민지화될 날 도 멀지 않았다. <이이 오래전부 >

쌀개방 못한다

터 우리나라의 쌀농장이 중국의 광활한 대지위에서 제비되고 있다는 사실은 또 무엇을 반증하는가. 미 국방·중국쌀할것없이 세계각국의 값싼 쌀이 한국시장을 향해 질주해 올때 우리 농촌의 농민은 무엇을 생존수단으로 삼아야 하는지 답을 찾을수 없다.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상태에서 우리쌀을 생산한 농민

EXPO vs 엑스포

1893년.사카고

콜럼부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 400주년을 기념하여 유치된 제 13차 엑스포 대회 참가 국 명단에 처음으로 '코리아'라는 이름이 기록으로 보아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던 듯 싶지만 그것은 자라는 의의는 자못 컸습니다. 엑스포 최초 참가라는 의미에도 오랜 해외정착을 청산하고 세계를 향해 우리의 대문을 열려는 다각적 시도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성공적인... 여덟년 기와집으로 꾸며진 당시 한국관에 관부·도자기·모시·부채·감우·기마 등이 전시되어, 함께 파견된 10명의 국악사들이 연주하는 전통음악과 더불어 전세계 곳곳에서 몰려든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사카고의 코리아 선풍'은 나라 안으로는 구한말 고종황제 30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1993년.대전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우리나라가 주인이 되어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코리아'가 처음으로 참가한 사카고 대회부터 꼭 100년만의 패기/축제 마당은 한반도 중심부에 자리한 한밭 대토으로, 유서깊은 많은 문화유적지와 더불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총본산인 대덕연구단지까지 함께 하는 그야말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독특한 곳입니다. (새로운 도약의 길)이라는 주제로 전통과 현대과학의 멋진 어우러짐이 펼쳐지는 가운데 20세기를 결산하고 21세기의 포문을 여는 지구촌의 대축제 '대전엑스포'93' 지난'88년 서울 올림픽이 세계의 동과 서가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로 만나는 장이었다면, 대전엑스포는 세계의 남과 북이, 그 경제적 격차를 뛰어넘어 균형있는 발전 속에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1893년.서울

세번 고아서 燒酎, 이슬처럼 받아내 露酒, 정기를 높여준다 하여 氣酒라고 불리던 소주가 마포·동막·공덕리 등지에서 제조되고 있었 습니다. 당시 이 일대의 양조장은 대략 100여호 정도. 제조 보급량이야 지금과 견줄 바가 못되었지만 당시 할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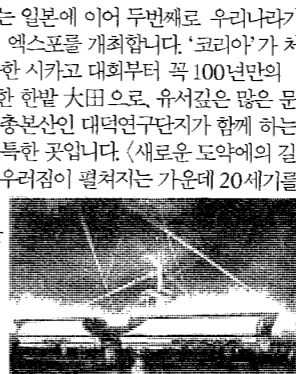
1993년.眞露

대전 EXPO를 기념하고 우리 술의 국제화를 위해 진로가 새로운 감각의 우리 술을 선보입니다. '세계와 함께 나아가는 신세대 眞露'에 어울리는 우리 술을 개발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선두주자로 시의 오랜 전통과 첨단 기술을 현대 모야 마찰내 眞露가 탄생시킨 신소주—'眞로엑스포' 최상의 알곡만을 엄선해 저온 발효시킨 쌀주정이 첨가되어 그 향이 더없이 부드럽습니다. 게다가 정면과퍼쳐리로 한번 더 걸러냈어 맑고 투명한 소주 특유의 깨끗한 맛이 그대로 느껴지면서도 마신 뒤 숙취가 남지 않아 뒷날 또한 깔끔합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즐기고 깨끗하게 취하는 바로 이 소주—'眞로엑스포' 21세기로 향하는 우리의 깨끗한 선택입니다.

'南酒北鮮'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목박산(지금의 남산) 남쪽면 이 지역에서 빚어지는 소주는 이미 정평이 나 있었습다. "그 맑음은 물과 같고 그 맛은 진하고 강렬하다"고 묘사한 옛 문헌만 보아도 당시 소주의 진가를 넉넉히 가늠할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주를 사시사철 즐길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듯, 이른 봄부터 미려해둔 주정을 발효시켜 두었다가 5월이나 되어서야 빚기 시작했고 10월 무렵이 되면 그나마도 한해 마무리를 해야 했던 탓에 소주는 "春秋佳節에 대한 귀한 술"로 여겨지곤 했답니다.



眞露 株式會社 眞露



眞露

眞로엑스포는 EXPO'93을 기념하고 소주의 국제화를 위하여 진로의 첨단 양조기술이 정성껏 제조한 EXPO'93공식소주입니다. 1924 1955 1967 1979 1989 1992

*EXPO란? 올림픽 대회와 함께 세계적인 양대 이벤트로 자리를 굳힌 EXPO는 '박람회 EXPOSITION'의 줄임말로 경제·과학·기술·문화의 종합올림픽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眞露